

활동 13			
세부 활동명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종로구 견지동)		
교육일시	2004.07.21	교육장소	종로구 일원
		교육인원	6명
강사	성명	박 후 서	연락처
	약력	1. 대신고등학교 환경지킴이 동아리 지도교사. 2. MBTI 강사 3. 한국 환경교육학회 정회원 4. 한국 자생식물보존회 정회원 5. 그린웨이·그린스카우트 지도교사 협의회 중·고등부 회장 6.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회원	
교육내용	1. 녹색의 어르신 찾아가기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소재 백송(지정번호: 천연기념물 9)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소재 회화나무(지정번호: 서 1-9) 2. 녹색 어르신과 대화 나누기 ①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르신의 신상메모 ② 녹색 어르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③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르신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3. 녹색 어르신 소개하기 ① 녹색 어르신이 처한 실상을 어떻게 소개할까? 4. 관련 자료 첨부 ① 활동사진 ② 관련 환경현장교육 자료		
준비물	워크북, 필기도구, 줄자 20m 2개, Haglof Electronic Clinometer, 매트, 카메라, 필름, 녹음기, 쓰레기봉투	참고 자료	1. 인터넷: http://152.99.197.75/koreaplants/index.htm http://www.congnamul.com/ 2. 전영우, 2002. 「숲과 녹색문화」. 서울, 수문출판사. 3. 김갑덕 외, 1994. 「숲·사람과 문화」. 서울, 탐구당 4.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
평가	1. 단원들이 녹색 어르신의 생애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얽힌 이야기를 듣고 자 주변 어르신들이나 녹색 어르신을 보살피시는 관리자 분들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다. 2. 우리가 길이 보존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천연기념물이 너무 초라하게 서있는 모습을 보고 단원들이 경악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태적 행동이 금방이라도 나올 듯한 모습을 보고 참으로 보람을 느꼈다.		

2004년 7월 21일 활동사진

녹색 어른신의 발자취를 찾고자 인터뷰 하는 모습



녹색 어른신의 발자취를 찾고자 인터뷰 하는 모습



견지동 45 소재 녹색 어른신(백송)의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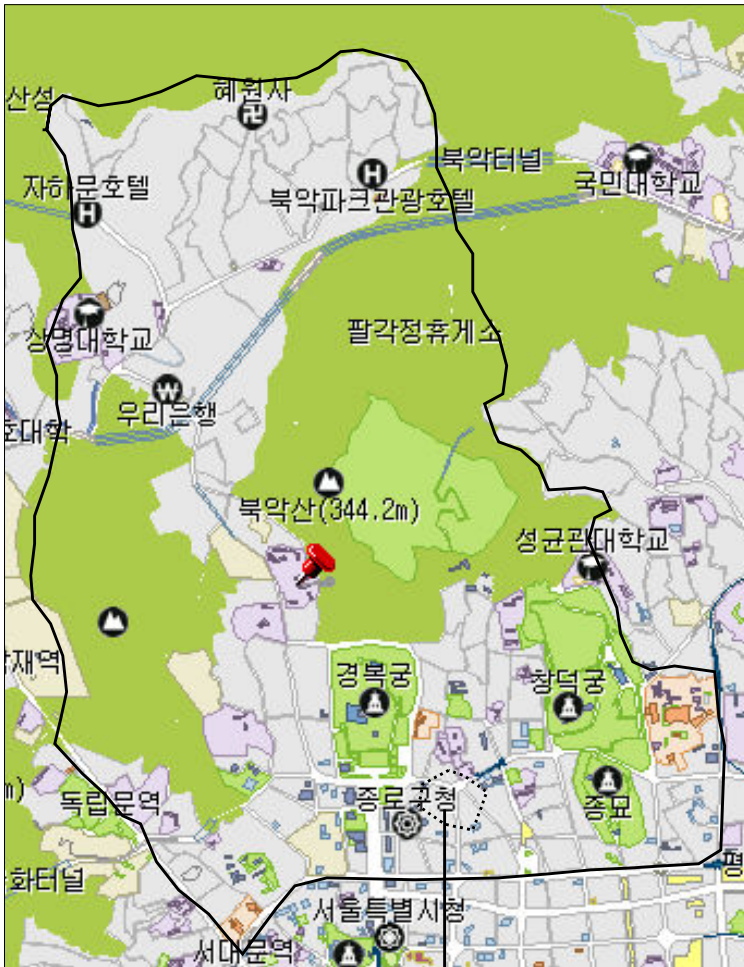
견지동 45 소재 녹색 어른신(회화나무)의 탐방



일정표

시간 (이동방법)	일정	세부 내용	비고
09:30 - 10:20 (지하철 및 도보)	10, 11차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 및 도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소재 백송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9)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소재 회화나무(지정번호: 서 1-9)	- 지도교사 인솔 (교통사고 주의)
10:20 - 11:30	녹색어르신과 대화나누기	-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른신의 신상메모 - 녹색 어른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 가 있을까? -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른신이 계속해서 남 아 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 명상을 통한 녹색 어른신과 영성 나누기 - 녹색어르신에 대한 주변 알리기 방법 구안	- 지도교사 교육지도 - 워크북 참조
11:30 - 11:40 (마을버스 귀가)	간식 및 주변 청소	- 간식 - 주변 청소	- 지도교사 지도

종로구 지역에 관한 지도



제 10, 11차 녹색어르신 찾아가기 지역

녹색어르신에 대한 정보

● 백송(*Pinus bungeana* Zucc.)

나무의 특성

600여 년 전 중국에서 들어온 상록교목으로서 높이 15m, 지름 1.7m에 달하며 수피는 맛맛하고 큰 비늘처럼 벗겨져 회백색을 나타내므로 백송(白松), 또는 백골송(白骨松)이라고 한다. 양수로서 햇볕을 좋아하며 내한성이 강하고 도시의 각종 공해에도 견디며 토심이 깊고 비옥한 토양에서 생장이 양호하며 산성토양을 좋아한다. 뿌리에 세균이 적으므로 이식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관상용으로 심는다.

잎, 꽃, 열매의 특성

잎은 3개씩 속생하며 길이 7~9cm, 넓이 1.8mm로서 삼릉형을 이루며 꽃은 자웅일가화로 5월에 피고 열매는 이듬해 10월에 익으며 길이 6cm, 넓이 4.5cm이고 종자는 길이 9~12mm, 넓이 7~9mm이며 란형으로 황갈색 줄이 있으며 불완전한 날개가 있다.

기타

수피가 백색으로 신비스럽고 아름다우며 백색과 녹색의 조화가 우아하여 옛부터 승려와 학자들이 이를 신비스럽게 생각하여 사원과 정원에 기념수로 식재하여 왔다.

- 견지동 백송의 특성

나무보기 : 현재 이 나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찰 내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 있어 환경변화가 커 생육상태도 좋지 않은 편이다. 천연 기념물로서 가치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백송'이란 이유만으로 지정됐지 않았나 싶다. 이 나무는 한동안 600여 년이나 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알려져 왔는데 국민대 김은식 교수가 나무의 몸통을 가지고 정밀 분석하여 94년 임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00살 남짓된다고 발표하였다.

문화재 가치 : 나무가 조계사 대웅전 바로 앞에 있는데, 조계사가 1929년 일제치하에 사찰령(寺刹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절임을 감안한다면 불교와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겠다. 절이 세워지기 전 그 자리에 살고 있던 그 어떤 사대부 집안의 '권세의 상징'이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아무튼 나무의 수령으로 봐서 절이 세워질 무렵에도 이미 교목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2004년 7월 21일 활동 결과물

1.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느낌

오늘 녹색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일평 느낌 적어보기 (찾아가면서 느꼈던 느낌)

푸록 짙은 난쟁이 불교학교 새학살계 피어있는 똥이들이 소나무 나뭇잎이 있는 것 같았다. 똥 매지락으로 달걀 자국이 속해 있는 이 나무들 중 하나인 이 백송은 마치 발구 전에 눈이 내리라고 한듯 새학살다. 이 나무를 97년 4월 목죽음을 지켜보다가 살아오듯 모든 것이 화살이 변하는 것 같았다. 머리와 가슴이 찡찡해지는 것 같았다. 벼를 여러 번짓도 오르지않 나뭇잎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인명 '애늬'... 아렸는 이 백송은 공부하기 전에 97년 4월 21일 300살 장수 잘 될 것 같았다.

이 노거수 역시 조계사에 귀치해 있지만 상태는 매우 좋았다. 대지도 흙으로 되어있고, 밑도 푸른 것이 매우 좋아 보였다. P.H.도 좋게 나온 편이고, 아무래도 조계사의 기둥이 될 나무인 것 같다.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열리는 축제 같은 것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나무라고 들었다. 나무의 상태는 여태까지의 것들 중에 가장 좋았고, 모든 것이 좋은 상태였다.

2. 녹색 어른신의 신상 메모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						
녹색어른 신이 계신 주소	특종구 청계동 44		한자	백솔		
			봉지에 입맞는 한자	white oak tree		
녹색 어른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천연생물 지정번호	이 름	유 명	천연기념물	
	지정연월	1962.10.3	지 부	대외(자연)	생육상태	중
	수 명	5398577	수 고	12.6	흉고 직경	1.8m
					수관폭	12.3
수목의 특성	수목의 느낌 치어보기					
	아! 천연기념물이다 백솔을 처음 보서 신기하고, 멋있다 천연기념물 나무는 처음 보서 또 신기 했다.					
보호시설	임간판	원주(한자)	배타상태	양호	보호제	없음
피해부위	일의상태	중	수관상태	하	안정성	하
					생육상태	중/위
녹색 어른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1. 잎 상태가 별로 많을 것을 조사하여 치료 2. 양간판 설치 (한글로) 3. 보호채 설치					
				3.0	4.0	3.0
				4	원경사 (100%)	
				3.0		
녹색 어른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 도
4.70	무	연갈색	100	3.0	유	3.0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						
녹색어른 신이 계신 주소	여독본리 259-2번지 45		한자	큰나무		
			봉지에 입맞는 한자	가래		
녹색 어른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천연생물 지정번호	이 름	유 명	문화유	
	지정연월	1972.10.2	지 부	대외(자연)	생육상태	양호
	수 명	456(가)	수 고	20.4m	흉고 직경	4.2m
					수관폭	25.7m
수목의 특성	수목의 느낌 치어보기					
	발의 같은 것이 많이 출현하고 아주 건강하고 활활하게 자란다. 예전에 상순에 서 보았던 도끼가 보인다 했었던 것 같다.					
보호시설	임간판	무	배타상태	양호	보호제	무
피해부위	일의상태	양호	수관상태	양호	안정성	중
					생육상태	양호
녹색 어른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꽃이 있는 2개의 과자를 반의 글에서 가까이 좀더 자유롭게 배치하면 좋겠다.					
녹색 어른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 도
4.96	무	연갈색	100	3.0	유	2.7

3. 녹색 어르신과의 교감과 봉양 대책

<p>평생을 통한 녹색어르신 영성나누기 느낌 적어보기</p>
<p>리베라 데이, 화요일엔 무슨 것들 사랑하듯 있도록 큰 마음 으로 주어야.</p>
<p>녹색어르신의 처한 상황 주변에 알리기 방법 만들어 보기</p>
<p>앞서 소개했던 몇몇 나누어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처해 있다면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옆에서 관심을 하는 것이 만 그게 가능한 것은 없을 듯하다. 관리에서 조금 의자를 갖기 되면 관리를 의 뿌리가 닿는 것과 새지가 자라갈 곳이 있는 것이다. 열한달의 공감이 이루어진다. 마감의 신청을 써 주어서 지어를 바꾸거나 들거나 이식. 기증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p>
<p>이 노수가 처한 곳은 개인 또는 공공이 사람들이 기증을 쓰기 위해서 또는 같이 하면 된다. 이런 것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시설 파견 관리가 되어 있고 있는 노수들로 해서 누가 때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노수 그걸 위해서다. 잘 관리하는 곳에서 노수 함께 관리하고 있고 이곳이 있는 사람들은 그 노수 선영님 정으로 하면서 변화와 함께 기증은 드린다. 조용한 캠페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p>

4. 녹색 어르신에 대한 주변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

<p>녹색어르신에 관련된 인터뷰</p>
<p>1. 노거수에 관련된 실화나 관련 기록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p>
<p>없음</p>
<p>2. 최근 노거수 주변 주민들께서 노거수에 대해 신청서 하는 행사를 했는지 말씀해주세요.</p>
<p>4월 초과원 석가탑신림이 최나무이 들은 잔다. 제일 먼저 다. (약 500여개)</p>

활동 14			
세부 활동명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종로구 소격동, 팔판동)		
교육일시	2004.08.02	교육장소	종로구 일원
		교육인원	7명
강사	성명	박 후 서	연락처
	약력	1. 대신고등학교 환경지킴이 동아리 지도교사. 2. MBTI 강사 3. 한국 환경교육학회 정회원 4. 한국 자생식물보존회 정회원 5. 그린웨이·그린스카우트 지도교사 협의회 중·고등부 회장 6.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회원	
교육내용	1. 녹색의 어르신 찾아가기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65 소재 비술나무(지정번호: 서 1-23)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65 소재 비술나무(지정번호: 서 1-25)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2 소재 느티나무(지정번호: 서 1-29) 2. 녹색 어르신과 대화 나누기 ①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르신의 신상메모 ② 녹색 어르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③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르신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3. 녹색 어르신 소개하기 ① 녹색 어르신이 처한 실상을 어떻게 소개할까? 4. 관련 자료 첨부 ① 활동사진 ② 관련 환경현장교육 자료		
준비물	워크북, 필기도구, 줄자 20m 2개, Haglof Electronic Clinometer, 매트, 카메라, 필름, 녹음기, 쓰레기봉투	참고 자료	1. 인터넷: http://152.99.197.75/koreaplants/index.htm http://www.congnamul.com/ 2. 전영우, 2002. 「숲과 녹색문화」. 서울, 수문출판사. 3. 김갑덕 외, 1994. 「숲·사람과 문화」. 서울, 탐구당 4.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
평가	1. 단원이 녹색 어르신을 뵈러 가기에는 장애가 되는 지역이 있다. 군부대나 나라에 높으신 분이 계시는 곳이다. 이번 활동 장소가 바로 이런 곳이다. 따라서 카메라를 주어 사진만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2. 사진으로 보아 실재 산림청이나 종로구에서 측정한 수령이나 수고 등이 맞지 않는 듯하다는 단원들의 의구심에 찬 눈매가 사랑스러워 보였다. 3. 찌는 듯한 더위에 단원들의 녹색 어르신 찾아뵙기가 힘들어지는 가 보다. 단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 안타깝다.		

2004년 8월 2일 활동사진

소격동 녹색 어른신들(비술나무)의 모습



팔판동 녹색 어른신(느티나무)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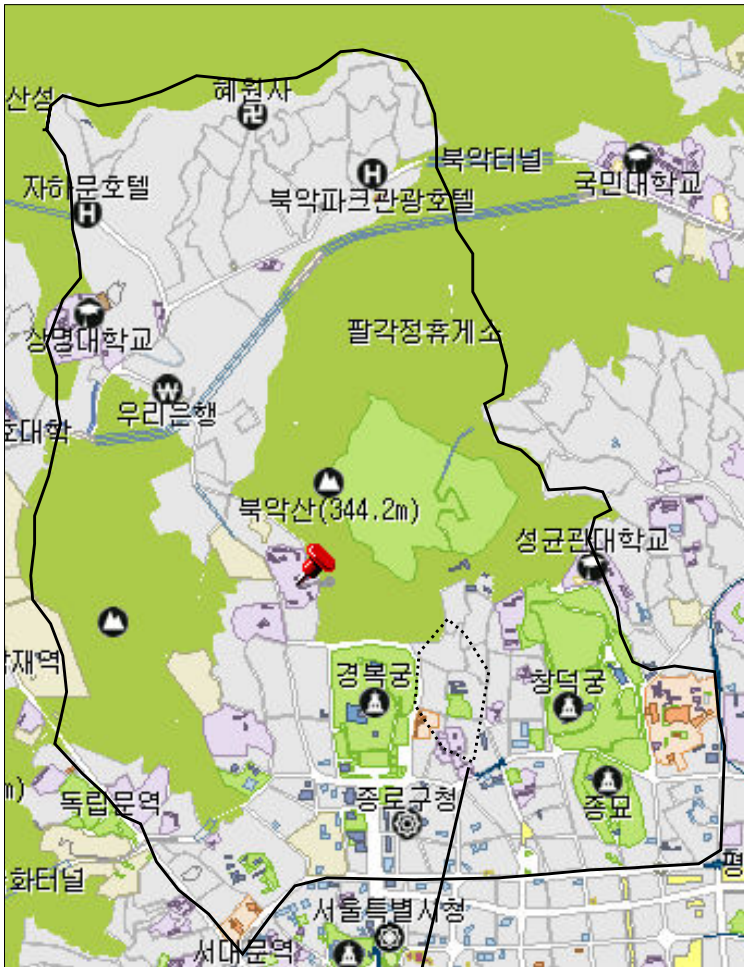
팔판동 녹색 어른신(느티나무)의 이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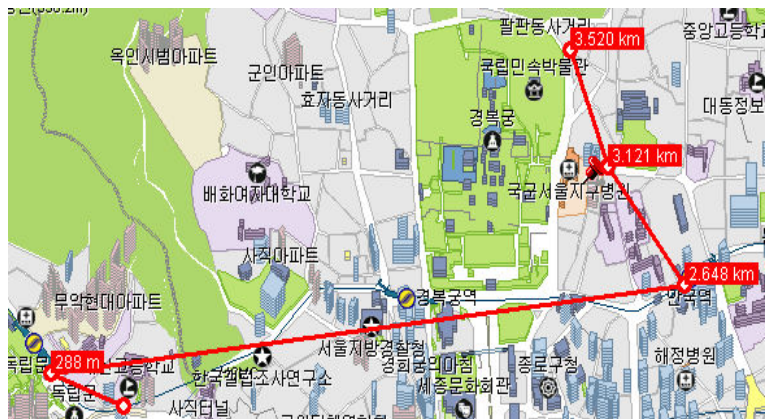
일정표

시간 (이동방법)	일정	세부 내용	비고
09:30 - 10:20 (지하철 및 마을버스)	12, 13차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 및 도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65 소재 비슬 나무(지정번호: 서 1-2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65 소재 비슬 나무(지정번호: 서 1-25)	- 지도교사 인솔 (교통사고 주의)
10:20 - 11:00	녹색어르신과 대화나누기	-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른신의 인상메모 - 녹색 어른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 가 있을까?	- 지도교사 교육지도 - 워크북 참조
11:00 - 11:50 (도보)	14차 녹색 어른신 스스로 찾아가보기 (지도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2 소재 느티나 무(지정번호: 서 1-29)	- 지도교사 인솔 (교통사고 주의)
11:50 - 12:50 (지하철 귀가)	녹색어르신과 대화나누기	-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른신의 인상메모 - 녹색 어른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 가 있을까?	- 지도교사 교육지도 - 워크북 참조

종로구 지역에 관한 지도



제 12, 13, 14차 녹색어르신
찾아가기 지역



녹색어르신에 대한 정보

● 비술나무(*Ulmus pumi la L.*)

나무의 특성

중부이북의 표고200~1, 300m(분포중심 200~300m)의 계곡 및 산록에 자라는 락엽엽교목으로 수고15m, 직경1m에 달하며 지리적으로 중국의 만주에도 분포한다. 내한성이 강하여 전국 어디서나 월동가능하며, 내건성은 약하고 내조성, 내공해성은 상당히 강하다. 음지나 양지에서 모두 잘 자라는데, 특히 토심이 깊고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에서 왕성한 성장을 보인다. 줄기는 직립하여 성장하고 수피는 회흑색 조각으로 갈라지며, 어린 가지는 회백색으로 밑으로 늘어진다.

잎의 특성

잎은 호생하며 긴 타원형이고 길이 3~5cm로 예저 또는 원저이며 가장자리에 복거치가 있다. 엽병은 길이 2~8mm로서 처음에는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꽃의 특성

꽃은 양성으로 3월에 핀다.

열매의 특성

열매는 5월에 익으며 시과로서 길이 1.2~1.3cm이며, 넓이가 길이보다 넓다. 5월에 성숙한 종자를 채취즉시 파종한다.

기타

목재의 변재는 백색, 심재는 암홍색으로 질이 좋고 무거우며 탄력성이 세고, 갈라지지 않으므로 건축재, 기구재, 우산손잡이, 선박재 등으로 쓰인다. 배수가 양호하고 적절한 토양에서는 제조건에 적응성이 크며 생장이 신속하여 녹음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으며 겨울철 은백색의 하얀 수관은 낭만적이다.

2004년 8월 2일 활동 결과물

1.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느낌

오늘 녹색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일경 느낌 적어보기 (찾아가면서 느꼈던 느낌)

다른 어느 나무든 보다 더 애정이 가고, 기 되었던 나무였다. 특히나 청과대 바로 옆에 있는 바깥에 쳐져서 조사할 수 있었던 여정과 일이 더더욱 애정이 가게 되는 일이었다. 그러한 곳에 위치해있어서 관리도 잘 안 되고, 상태도 안 좋은 것 같다는 내 예상과는 달리 상태도 좋고, 그 전에 다녀왔던 나무보다 낫기 상태도 좋았다. 잎간파도 있고, 나무의 상태도 좋아보였지만, 보려도 없고, 바닥상태는 콘크리트라서 얼른 그 바닥은 바깥 더가, 나무는 옮겨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루 빨리 지금 보다 더 좋은 상대가 되도록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2. 녹색 어르신의 신상 메모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이 계신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경동 165			한자	비슬나무		문제에 입력된 한자	폰트	
녹색 어르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보통수	지정번호	서 1-23	유 명	풍치목			
	지정연월	1996/08/05		지 부	대지	생육상태	중		
	수 명	150년	수 고	19m	흉고 직경	21cm	수관폭	19m	
수목의 특성	별로 전방해 보아서 안고, 회회해서 쓰어질 것 같다.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보호시설	입간판	무	바닥상태	콘크리트	보호제	무			
위해부위	잎의상태	불량	수간상태	중	안 정 성	중	생육상태	중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화장동행사에 안전을 고려해바람 수형은 조절하고 영양공급을 실시해바람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이 계신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경동 165			한자	비슬나무		문제에 입력된 한자	폰트	
녹색 어르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보통수	지정번호	서 1-25	유 명	풍치목			
	지정연월	1996/08/16		지 부	대지	생육상태	중		
	수 명	150년	수 고	19m	흉고 직경	190cm	수관폭	19m	
수목의 특성	일기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매우 전방해보였다.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보호시설	입간판	무	바닥상태	흙	보호제	무			
위해부위	잎의상태	상호	수간상태	중	안 정 성	중	생육상태	중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지금처럼만 보호하면 될 것이다.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 도
				0	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 이 계신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광화동 2 110-200			합자	노티나무	
				봉쇄에 걸렸는 합자	천기등	
녹색 어르신과 대화나누기						
상세정보	구 분	보통	지정번호	서 1-29	유 명	풍류목
	지정연월	1992/10/12		지 부	대지	생육상태
	수 령	199년	수 고	18m	흉고 직경	380cm 수관폭 23m
수목의 특성	천기등같이 단단하고, 강해 보인다. 콘크리트가 주변에 깔린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불안했다. 수목의 느낌 색채(이)영양 수형이 작아 보인다.					
보호시설	입간판	유 (90cm X 60cm)	바닥상태	콘크리트	보호책	무
피해부위	잎의상태	보통	수관상태	중	안 정 성	중 생육상태 중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평상시 궁금해 물어보고, 바닥상태를 다시 검사해 봐 준다.					
녹색 어르신의 보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성	유레나 설화	관심 도
				0	무	

3. 녹색 어르신과의 교감과 봉양 대책

평상시 통한 녹색어르신 영성나누기 느낌 적어보기	
<p>더운 날 평상을 하느라고 힘들기는 했지만, 뜻 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좋고, 혼자 상상해서 나무와 대화해보는 것도 꽤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매도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나의 물음을 대답하는 것이 이리도 재미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었지만, 직접 해보니 평상은 한만 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	
<p>녹색어르신의 처한 상황 주변에 알리기 방법 만들어 보기</p> <p>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접 가볼 것을 권유하고, 또는 사진으로 나무들의 처지를 알리고, 간접적으로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주고, 직접 들어가보게 한다.</p>	

활동 15			
세부 활동명	숲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체험하기		
교육일시	2004.08.11-13	교육장소	양평군 하종면 명달리 교육인원 16명
강사	성명	박 후 서	연락처
	약력	1. 대신고등학교 환경지킴이 동아리 지도교사. 2. MBTI 강사 3. 한국 환경교육학회 정회원 4. 한국 자생식물보존회 정회원 5. 그린웨이·그린스카우트 지도교사 협의회 중·고등부 회장 6.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회원	
교육내용	1. 환경부와 산림청 지정 우수 산골마을에 방문하여 숲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체험하는 캠프를 실시한다. 2. 주어진 시간 계획표와 워크북을 통해 우리의 삶에 녹색 친구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는다. ① 산골 체험마을에서 숲이 있어 마을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② 산골 체험마을이 친환경적인 농법이나, 계곡의 푸르름이 녹색 친구들이 있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3. 산골 마을의 녹색 어른 찾기 ① 마을의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녹색 어른을 찾아 생태조사를 해본다. ② 녹색 어른에 관련된 설화 등을 조사한다. 4. 관련 자료 첨부 ① 활동사진 ② 관련 환경현장교육 자료		
준비물	워크북, 필기도구, 줄자 20m 2개, Haglof Electronic Clinometer, 매트, 카메라, 필름, 녹음기, 쓰레기 봉투, 목공예품 재료,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 의약품, 손전등,	참고 자료	1. 전영우, 2002. 「숲과 녹색문화」. 서울, 수문출판사. 2. 김갑덕 외, 1994. 「숲·사람과 문화」. 서울, 탐구당 3.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
평가	1. 단원들이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이 모여 너무 행복하다. 2. 숲 속에서의 삶이 도시에서도 가능하도록 단원들이 앞으로 생태적 행동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산골에서 발견되어진 반딧불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환경보전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04년 8월 11-13일 활동사진



숲의 마을 명달리의 소개



친환경 우렁이 농법 소개



목공예품 만들기 시간



완성된 목공예품의 자랑



맛있는 인절미 만들어 먹기





동트는 새벽녘에 숲과 나와의 하나됨



숲의 계곡 수질조사



숲의 녹색 친구 기록하기



자연의 색 닦아가기(치자 염)



깊은 밤 정적 속에서 자연의 소리 가슴에 담기



가슴에 담은 자연의 소리 드라마로 표현해보기

2004년 8월 11-13일 활동 워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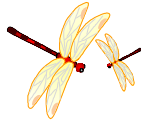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명달리에서

숲 체험 캠프

대신 고등학교 환경지킴이

후원

 **KYOBO**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Kyobo Foundation
for Education & Culture



목 차



1. 사촌마을 들어가기
2. 명달리에서의 친환경 농법
3. 모공예 - 미니 솟대, 모거리 만들기 -
4. 이절미 만들기
5. 동트는 새벽녘에 숲과 나의 하나됨
6. 숲 속의 수질조사
 - 6-1. 유기농법 체험장의 수질조사
7. 숲 탐방 일지
8. 식목친구 자세히 알아보기
9. 연색체험 - 치자염
10. 자연의 소리 듣고 드라마 만들기

☐ 숲 체험 캠프에서 뭐해요?

구분	시 간	프로그램	비고
	13:00~15:00	● 서울에서 명달리로 떠나요~	
	15:00~17:30	● 산촌마을 들어가기 - 명달리는 어떤 마을일까요? - 우렁이논, 옛 농가탐방	
첫째날	17:30~18:30	● 맛있는 산골 저녁밥상	
	18:30~20:30	● 아기자기 산촌문화, 목공예가 있습니다. - 너도나도 재주꾼! 이야기를 남기자 (마을에 남기고 갈 공동작품 만들기)	
	20:30~21:00	● 산골마을 족구대회	
	21:00~22:00	● 구수한 산촌의 맛~ - 쿵덕쿵덕, 인절미 만들어먹기! 떡메치기 / 콩가루 묻혀서 먹기	
	22:00~	● 멋진 내일을 꿈꾸며...	
둘째날	07:00~08:00	● 신선한 아침공기 맡으며 일어나요!	
	08:00~09:00	● 즐거운 아침밥상	
	09:00~10:30	● 숲 속 계곡의 수질조사	
	10:30~12:00	● 송글송글 땀방울, 농사체험 - 나도 큰 일꾼! ^^ 열심히 배워봅시다	
	12:00~13:00	● 열심히 일한 후의 꿀 맛 나는 점심밥상	
	13:00~16:00	● 신나는 물놀이! - 풍덩풍덩 시원하게 물놀이도 하고 - 물속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16:00~18:00	● 자연으로부터 오는 멋진 색깔! - 은은한 우리의 색, 천연염색 체험하기	
	18:00~19:00	● 오순도순 저녁밥상	
	19:00~21:00	● 자연의 소리를 듣고 드라마 만들기 - 오늘의 주인공은 귀뚜라미와 개구리에요	
	21:00~22:00	● 산촌의 여유로움을 느껴보세요~	
	22:00~23:00	● 도란도란 별보며 밤길걷기 - 반딧불이도 보고, 밤공기도 맛보고~	
	23:00~	● 캠프를 정리하며 꿈나라로...	
셋째날	07:00~08:00	● 산촌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해요	
	08:00~09:0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아침밥상	
	09:00~11:00	● 잘 익은 옥수수를 누가 제일 잘 따나~	
	11:00~11:30	● 짐정리 및 주변 청소	
	11:30~12:30	● 맛있는 산골밥상~	
	12:30~	● 추억을 가득 안고 집으로~	

1. 산촌 마을 들어가기

명달리는 가평군 청평과 강원도 홍천군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있는 통방산, 중미산, 유명산 줄기에 있는 산속 해발 250m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양평 읍내에서는 약 40km 떨어져 있다. 서울과의 거리는 차량으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을 허리에 끼고 자리 잡은 높은 산과 어우러져 있는 계곡은 많은 잣나무가 있으며 주변 중미산 휴양림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로 부터 매력을 느끼게 한다. 현재 폐교된 명달리 정배 분교를 체험 교육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였다.

사방이 산이고 농토가 적은 관계로 마을주민들은 잣수확 작업, 산림작업, 표고버섯, 영농, 한봉, 산채채취, 민박과 음식 제공 등 산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없으나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지 없이 산림작업만 하는 비농가도 있다.

마을주민들 스스로 벼농사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우렁이 농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몇 번의 산촌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생태마을로 만들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국내외 선진마을을 답사하였고 마을운영을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체적인 사업추진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하여 생태마을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이하 생략

2004년 8월 11-13일 활동 결과지

2. 명달리에서의 친환경 농법

친환경 농법이 필요한 이유? 농약 사용과 토양 비옥도 저하 때문	친환경 농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 화학약 - 적당 농도 2) 유기농 - 모든 3) 유기농 - 비옥한 토양 유기농 비료 사용은 중요
친환경 농법에서 권장되는 수서동물은? 무엇이 명달리 물고기, 물잠자리, 개구리	우렁이의 생태는? 잡초를 제거 양호한 환경 - 7월 11일
친환경 농법은 생태계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잡초 제거, 병충해 방제, 유기농 비료	
친환경 농법이 어려운 점과 자원이 느끼는 소감은? 농업 농법 선택이 더 자유로워야 하고, 양질의 비료 사용이 중요하다. 수익이 많이 든다. 수익 증가 환경보전 Mr. Sealing	친환경 농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서, 오늘 알게 되어 좋았고 환경의 유익을 더 알고 싶었다. 경 농법을 이용한 곡식들 많이 있다.

조사지역	이군리(6촌)	소재	대신초등학교	이름	조지훈
조사 목적	지역의 지역	날씨	맑음	시간	
조사 방법	부분	조사자	학생	조사지점의 생장 상태	
측정 결과	영양분 함량 (NPK)	0.005	0	영양분 함량	영양분 함량
	중성염기성 (pH)	0	0	중성염기성	중성염기성
	중성염기성 (pH)	5	5	중성염기성	중성염기성
	중성염기성 (pH)	11.5	11.5	중성염기성	중성염기성
부양영양 상태	빈영양화 (0.9 ppm 미만)				
기타 (조사 중에 느낀 점)	물이 매우 깨끗해서 정말 놀랐고, 뽕나무 잎이 많이 떨어져 있어, 1군도에서 떨어진 것 같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서 힘들지 않게 실험을 했고 다시 한번 수직검사를 해서 보았었다.				

밭의 드러마에 출연한 연기자들 무엇이 있는가?

김 - 양득희	풀 1 - 정수현	가 1 - 최민창
사냥꾼 - 나	2 - 정수호	2 - 유규형
노가수 - 맹영호	3 - 성민석	3 - 심은주
		등 - 김상훈

밭의 드러마를 감상한 소감은?

정말 재밌었고, 실감이 났다 처음 이런 것도 해보고 연극부도 아니어서 약간 어색한 면도 있었지만 재밌고 한번 해보는 것도 추억에 남아서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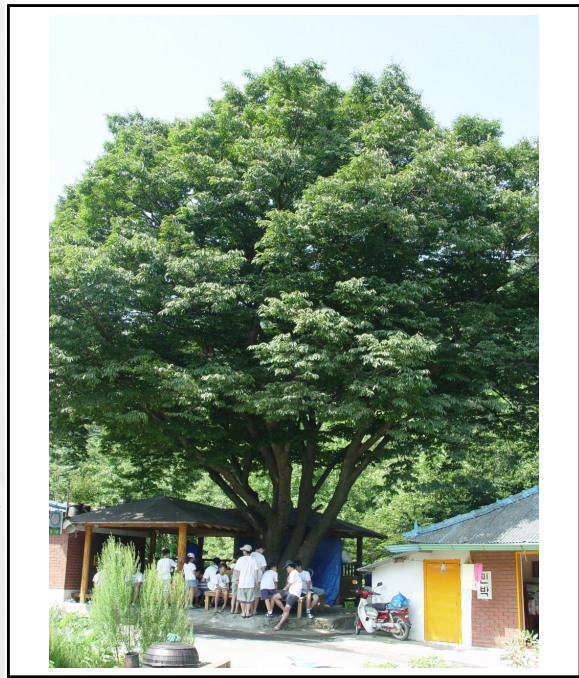
다른 이의 밭 드러마와 토론한 소감은

다른 밭들도 재밌었지만 역시 우리지가 최고다.

명달리 녹색 어르신 방문 및 탐방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이 계신 주소	명달리 소곡 2반 55번지	한자	네타쿠
		봉제에 집짓는 한자	
녹색 어르신과 대화 나누기			
구분	명달리	지정번호	
지정연월		지부	생육상태
수령	100년	수고	17.5m
		높이 직경	3.87m
		수관폭	17.7m
수목의 특징	중형 식재와 파 이빨은 나무다. 웅장한 몸으로 아래에 있는 장을 재우는 위라고 한다. 이쪽 명달리의 수목이다.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보호시설	입간판	바다상태	보호책
피해부위	잎의상태	수간상태	안정성
	상호	상호	상호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수관관리와 가지치기를 어르신과 함께 하기로 했다. 논타임을 정한다.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어보기			



활동 16			
세부 활동명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종로구 가회동, 화동, 재동)		
교육일시	2004.08.16	교육장소	종로구 일원
		교육인원	6명
강사	성명	박 후 서	연락처
	약력	1. 대신고등학교 환경지킴이 동아리 지도교사. 2. MBTI 강사 3. 한국 환경교육학회 정회원 4. 한국 자생식물보존회 정회원 5. 그린웨이리·그린스카우트 지도교사 협의회 중·고등부 회장 6.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회원	
교육내용	1. 녹색의 어르신 찾아가기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1-22 소재 회화나무(지정번호: 서 1-7)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38-32 소재 회화나무(지정번호: 서 1-20)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35 소재 백송(지정번호: 천연기념물 8호) 2. 녹색 어르신과 대화 나누기 ①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르신의 신상메모 ② 녹색 어르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③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르신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3. 녹색 어르신 소개하기 ① 녹색 어르신이 처한 실상을 어떻게 소개할까? ② 녹색 어르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③ 우리 삶 속에 노년 어르신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4. 관련 자료 첨부 ① 활동사진 ② 관련 환경현장교육 자료		
준비물	워크북, 필기도구, 줄자 20m 2개, Haglof Electronic Clinometer, 매트, 카메라, 필름, 녹음기, 쓰레기봉투	참고 자료	1. 인터넷: http://152.99.197.75/koreaplants/index.htm http://www.congnamul.com/ 2. 전영우, 2002. 「숲과 녹색문화」. 서울, 수문출판사. 3. 김갑덕 외, 1994. 「숲·사람과 문화」. 서울, 탐구당 4.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
평가	1. 같은 회화나무 녹색 어르신일지라도 가회동에 있는 녹색 어르신은 아스팔트에 갇혀 뿌리가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상태를 파악한 단원들은 모두들 가슴아파하고, 녹색 어르신이 편안하게 우리의 삶과 같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대견스러웠다. 2. 화동에 있는 회화나무 녹색 어르신은 풍채는 선비와 같은 청빈하면서도 청아함을 불러일으키어 주변 정독 도서관을 지나는 학도들에게 학자의 품위를 보여주어 참으로 기뻐으나, 불행히도 주변이 너무 더러워 그 빛을 잃어가 너무 안타까웠다. 따라서 단원들은 주변 청소를 열심히 하였다. 3. 헌법 재판소 내에 있는 천연기념물 8호인 백송은 줄기가 백색을 띄어 의연한 기상을 내보이는 녹색 어르신으로 헌법 재판소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단원들은 녹색 어르신의 기상을 가슴에 담아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다.		

2004년 8월 16일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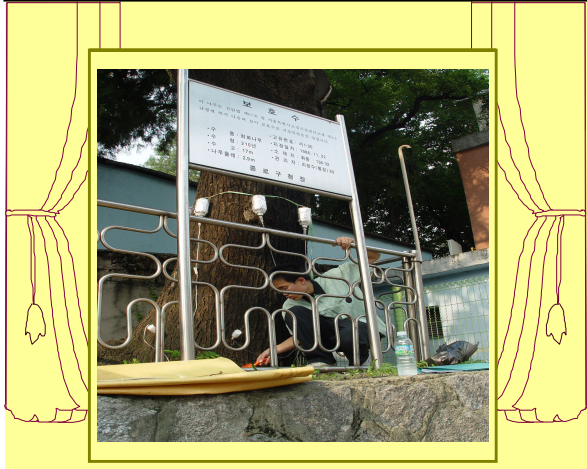
걱정스러움으로 녹색 어르신을 탐방하는 모습



가회동 녹색 어르신(회화나무)이 살아가시는 모습



화동 녹색 어르신은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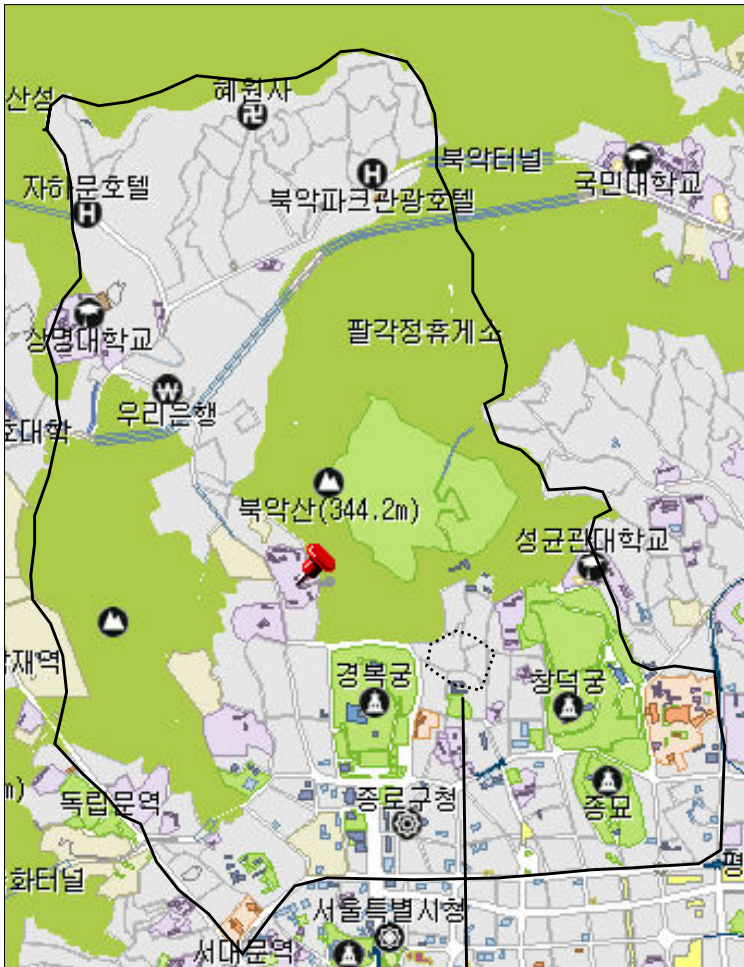
재동 녹색어르신(백송) 아픈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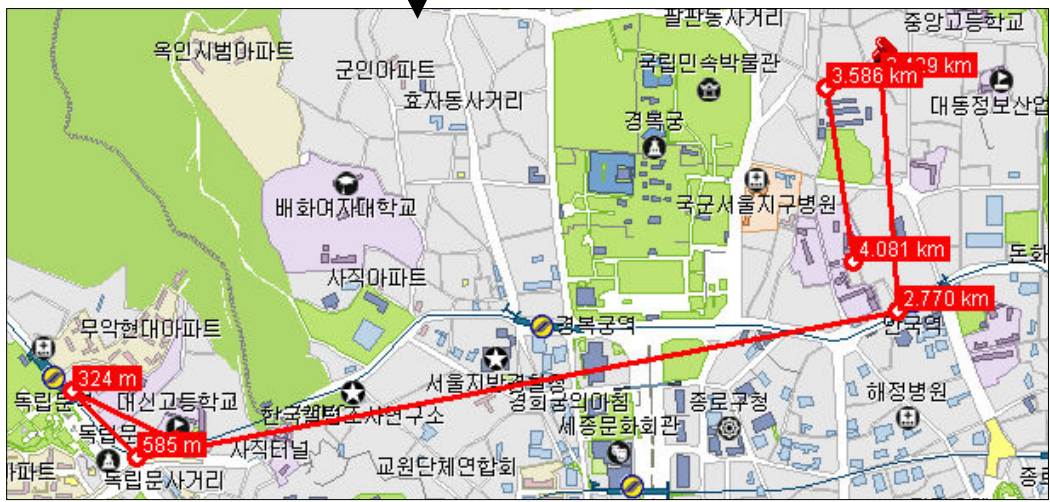
일정표

시간 (이동방법)	일정	세부 내용	비고
09:30 - 10:30 (지하철, 마을버스, 도보)	15, 16차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 및 도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1-22 소재 회 화나무(지정번호: 서 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38-32 소재 회화 나무(지정번호: 서 1-20)	- 지도교사 인솔 (교통사고 주의)
10:30 - 11:00	녹색어르신과 대화나누기	-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른신의 인상메모 - 녹색 어른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 가 있을까? -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른신이 계속해서 남 아 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 명상을 통한 녹색 어른신과 영성 나누기 - 녹색어르신에 대한 주변 알리기 방법 구안	- 지도교사 교육지도 - 워크북 참조
11:00 - 11:20	간식 및 주변 청소	- 간식 - 주변 청소	- 지도교사 지도
11:20 - 11:40 (도보)	17차 녹색 어른신 스스로 찾아가보기 (지도 참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35 소재 백송(지 정번호: 천연기념물 8호)	- 지도교사 인솔 (교통사고 주의)
11:20 - 11:40 (지하철로 귀가)	녹색어르신과 대화나누기	-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른신의 인상메모 - 녹색 어른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 가 있을까? -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른신이 계속해서 남 아 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 녹색어르신에 대한 주변 알리기 방법 구안	- 지도교사 교육지도 - 워크북 참조

종로구 지역에 관한 지도



제 15, 16, 17차 녹색어르신
찾아가기 지역



2004년 8월 16일 활동 결과지

1.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에 대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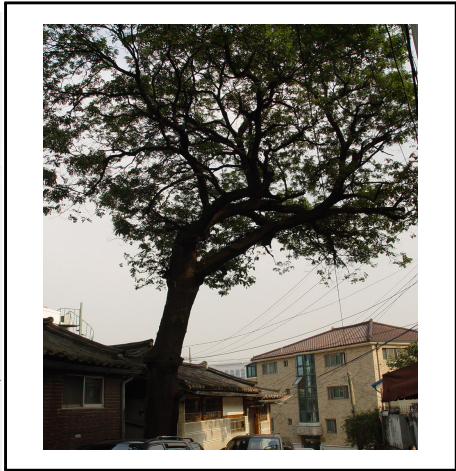
오늘 녹색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일정 느낌 적어보기 (찾아가면서 느꼈던 느낌)

이 나무는 심갈 했다. 바닷물 콘크리트 에다가
 일삼태는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고 살고 있는 게
 희시기 했다. 이런 나무가 없어야 하는데 관리를 어떻
 게 하나 안고 있다. 정원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관리도 안해서 왠지 이 나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음탕 죽을 것 같다 불쌍하다.

천년 관행과 관매 영등 지나서 때문이 나무가 있는 곳은 안 있었지만 이 나무가
 전과 다르게 이제 상당히 환경은 이상한 나무나 주변 상인은 일반인 나무도
 울음 울게나 있다. 크면 큰 나무를 보면 누가 보아도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좌우에 가파르게 관행했다. 물을 안이 다 들어서 세운 것 이 나무는 훨씬
 이 나무는 가늘고 나무가기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지... 이 나무어르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했다.

2. 녹색 어른신의 신상 메모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호리노
녹색어르 신의 재선 주소	서울특별시 가회동 31-22	한자: 호리노 나무 영어: Very poor tree
녹색 어르신과 대화내용		
구분	보통의 지점번호	서 1-7
지점번호	1000.6.5	지 부 콘크리트, 다량물, 경유상태
수목의 특성	수령	300 (약)
	수고	8.3m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수목의 특성	2.3m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수령부 1.5m
모양	사슴이 대안하다. 줄기엔 콘크리트에 매달려 있어 서 물을 흡수 하는데 어려움. 틈에 살고 있는 거 같 기하다. 잎들은 굵기가 뚝뚝 있어 빛 받기 스어 걸린 것 같기도 하다.	
관리	없음	관리상태: 콘크리트, 4.2m는 모호해
관리	관리상태: 중하	관리상태: 중하
녹색 어르신의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1. 이식한다. 2. 심한관 설치 3. 수관 및 단풍의 정기 환분	3.0 / 1.5
녹색 어르신의 보수 적어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 도
			0	3.0	무	1.3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 개신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동 13동 32-2		위치	외관산부		
녹색 어르신과 대화나누기						
상세정보	구 분	보양수	지정번호	서 1-200	유 역	종치목
	지정연월	1986.11.12	지 목	홍(대나무)	생육상태	중
수목의 특성	수 령	310(22m)	수 고	18.3m	흉고 직경	2.85m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눈에 잘 띄게서 화려한 주변 환경에 어울린다. 피하가 다 되어가는 건물, 쓰러지기, 권리 이더 등 이거야 알은 관념의 생장이다.				
보호시설	인간관	유(무(이)...))	바다상태	0(0(0))	보호제	有
의해부의 의해부	의해상태	중	수간상태	중	안정성	중하
녹색 어르신의 개수 만년 수 있는 방법	관정, 방울, 관로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흡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 성	유래나 설화	관심 도
7.56	유 (지렁이)	흑갈색	66.3	3.0	유	2.3

3. 녹색 어르신과의 교감과 봉양 대책

명상을 통한 녹색어르신 영성나누기 느낌 적어보기

나무의 생명의 숨겨진 해나 권리와 의무를 제가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나라에 있는 많은 힘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어르신의 처한 상황 주변에 알리기 방법 만들어 보기

앞에서 본 나무와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이것도 이식, 이목이 필요한 나무나 일하는
무슨 하수도(그어깨(배고) 위) 나무가 있고 또 부채가 하나도 없다 사서만 죽어가는 안이
하고 있다는... 전혀 만리가 안 되어 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사서만 있기 때문에 조
만한 흠뻑을 해도 그 나무는 흠뻑 산아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캠페
인 같은 여러 활동이 필요하다. 이 나무는 오래 살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활동 17			
세부 활동명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종로구 와룡동, 삼청동)		
교육일시	2004.08.17	교육장소	종로구 일원
		교육인원	10명
강사	성명	박 후 서	연락처
	약력	1. 대신고등학교 환경지킴이 동아리 지도교사. 2. MBTI 강사 3. 한국 환경교육학회 정회원 4. 한국 자생식물보존회 정회원 5. 그린웨이·그린스카우트 지도교사 협의회 중·고등부 회장 6.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회원	
교육내용	1. 녹색의 어르신 찾아가기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소재 다래나무(지정번호: 천연기념물 251)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소재 향나무(지정번호: 천연기념물 194)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소재 등나무(지정번호: 천연기념물 254)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소재 측백나무(지정번호: 천연기념물 255) 2. 녹색 어르신과 대화 나누기 ①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르신의 신상메모 ② 녹색 어르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③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르신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3. 녹색 어르신 소개하기 ① 녹색 어르신이 처한 실상을 어떻게 소개할까? 4. 관련 자료 첨부 ① 활동사진 ② 관련 환경현장교육 자료		
준비물	워크북, 필기도구, 줄자 20m 2개, Haglof Electronic Clinometer, 매트, 카메라, 필름, 녹음기, 쓰레기봉투	참고 자료	1. 인터넷: http://152.99.197.75/koreaplants/index.htm http://www.congnamul.com/ 2. 전영우, 2002. 「숲과 녹색문화」. 서울, 수문출판사. 3. 김갑덕 외, 1994. 「숲·사람과 문화」. 서울, 탐구당 4.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
평가	1. 오늘 찾아가는 녹색 어르신들은 특별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단원들은 가지 못하고 지도교사만이 출입하여 사진만을 촬영하였다. 2. 우리 고장에 단아하고 품위가 깊은 녹색 어르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 단원들은 자랑스러워했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3. 잘만 보존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줄 수 있는 녹색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한 활동이었다.		

2004년 8월 17일 활동사진

와룡동의 녹색 어른신(다래)의 모습



와룡동의 녹색 어른신(향나무)의 모습



삼청동 총리공관 내 녹색 어른신(등나무)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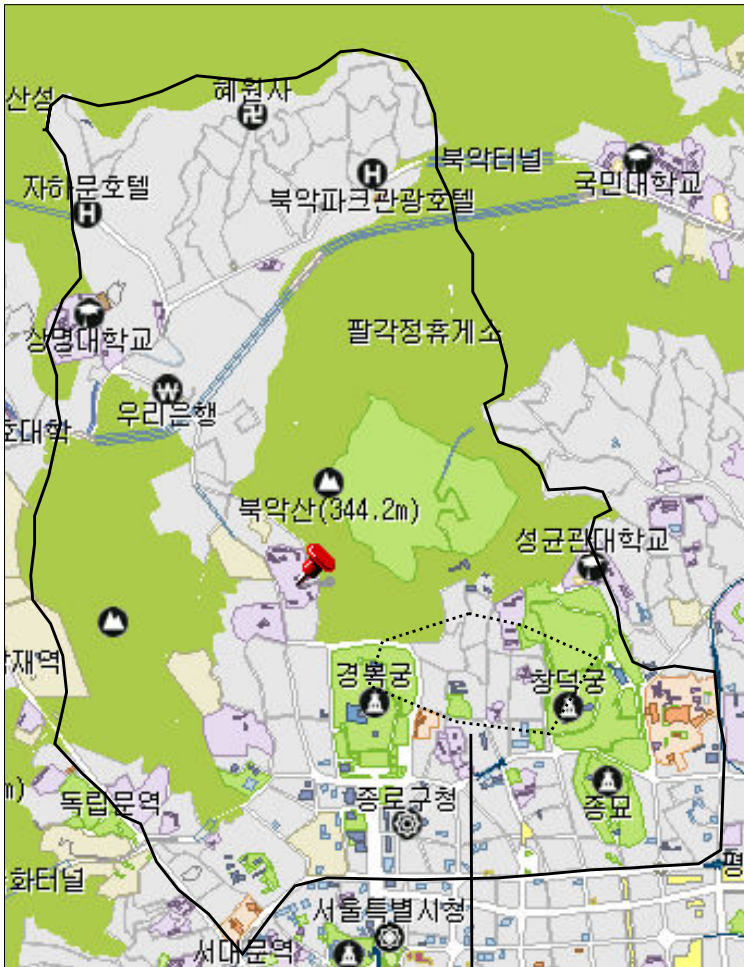
삼청동 총리공관 내 녹색 어른신(측백나무)의 모습



일정표

시간 (이동방법)	일정	세부 내용	비고
09:30 - 10:20 (도보 및 버스)	18, 19차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 및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소재 다래 나무(지정번호: 천연기념물 25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소재 향나무(지정번호: 천연기념물 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사 인솔 (교통사고 주의)
10:20 - 11:30	녹색어르신과 대화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른신의 신상메모 - 녹색 어른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른신이 계속해서 남아 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 명상을 통한 녹색 어른신과 영성 나누기 - 녹색어르신에 대한 주변 알리기 방법 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사 교육지도 - 워크북 참조
11:30 - 11:40	간식 및 주변 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 주변 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사 지도
11:40 - 11:50 (도보)	20, 21차 녹색 어른신 찾아가보기 (지도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소재 등나무(지정번호: 천연기념물 25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소재 측백나무(지정번호: 천연기념물 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사 인솔

종로구 지역에 관한 지도



제 18, 19, 20, 21차 녹색어르신 찾아가기 지역



녹색어르신에 대한 정보

● 다래나무(*Actinidia arguta* PLANCH)

나무의 특성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숲 속에 자라는 덩굴나무로 길이 10m를 훨씬 넘고 팔뚝 굵기에 이르기도 한다. 어린 가지에 잔털이 있으며 송구멍이 뚜렷하고 갈색이다.

잎의 특성

잎은 어긋나기하며 타원형으로 크기는 갓난아이 손바닥만하다. 잎 표면은 갈색으로 광택이 있으며 뒷면은 연한 초록빛이고 가장자리에는 바늘모양 톱니가 촘촘하다.

꽃의 특성

암수 딴 나무로서 꽃은 여름에 흰빛으로 피고 마치 작은 매화꽃과 같이 생겼다.

열매의 특성

맛만 보고 가라는 껌에 못 이기는 척하고 몇 알을 입 속에 넣어보면 달콤한 맛에다 깨알처럼 씹히는 씨앗까지 감칠맛이 일품이다. 이것이 바로 머루와 함께 야생과일의 대명사 다래이다. 단맛이 잔뜩 들어 있는 목화의 풋열매를 다래라고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달다'에서 다래의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다래는 그냥 생식하는 것 외에도 과일주를 담그면 달콤한 맛 때문에 먹기가 좋고 비타민 C와 탄닌 등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 강장, 보혈, 불면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꿀에 넣고 조린 다래정과(正果)는 우리의 전통과자로서 지체 높은 옛 어른들의 간식거리기도 하였다.

기타

동의보감에는 '심한 갈증과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을 멧게 하며 요결석을 치료한다. 장을 튼튼하게 하고 열기에 막힌 증상과 토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곡우를 지나 나무의 생리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사람들은 다래나무의 수액도 뽑아먹는다. 꺾어야 팔뚝 남짓한 다래나무 줄기에서 물을 뽑아내는 것이 귀찮다고 아예 덩굴을 싹둑 잘라버린다. 여기에는 마치 깊은 상처를 입어 피가 웅숭음 치듯이 수액이 넘쳐흐른다. 보고 있으면 똑똑 떨어지는 모양이 너무 섬뜩하여 마음 약한 사람은 마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다래나무 수액채취는 제발 삼갔으면 한다.

다래나무 종류에는 이외에도 개다래와 쥐다래가 있다. 둘 다 다래나무와는 달리 잎이 마치 백반병(白斑病)이 든 것처럼 흰 잎이 띄엄띄엄 섞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에서 개다래의 열매는 끝이 뾰족한 것이 쥐다래와의 차이점이다. 개다래는 달지 않고 헛바닥을 툭툭 쏘는 맛이 있어서 약용으로 쓸 때름이지 먹지는 않는다.

수입하여 재배하고 있는 키위(kiwi)도 다래의 한 종류이다. 언제부터인가 키위를 참다래라고 부르고 있어서 우리 산에 자라는 다래는 억울하게도 하루아침에 모두 가짜가 되어버렸다. 키위는 키위라고 그대로 부르고 참다래는 우리의 다래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다래나무와 족보는 멀지만 잎이나 덩굴의 모양이 매우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운 노박덩굴이 있다. 다래나무는 잎 가장자리의 톱니가 짧은 바늘처럼 촘촘한데 반하여 노박덩굴은 물결모양 톱니인 것이 차이점이다. 물론 딱딱하고 셋노란 노박덩굴의 열매를 보면 다래와의 차이점을 금세 구분할 수 있다.

● 등나무(*Wisteria floribunda* A.P.DC.)

나무의 특성

덩굴성 낙엽교목식물로서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간다.

잎의 특성

잎은 어긋나고 기수 1회 우상복엽이고 작은 잎은 난상 타원형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끝이 뾰족하다.

꽃의 특성

꽃은 5월에 잎과 같이 피고 밑으로 처진 총상꽃차례에 달리며, 연한 자줏빛이지만 백색도 있다.

열매의 특성

꼬투리는 기부로 갈수록 좁아지고 곁에 털이 있으며 9월에 익는다.

기타

사람과 사람사이에 다툼이 생겨 잘 풀리지 않으면 흔히 갈등(葛藤)이 생겼다고 한다. 바로 같은 침이고 등은 등나무를 말한다. 생김새는 둘이 전혀 다르나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하다. 혼자 주위의 다른 나무들과 피나는 경쟁을 하여 살아가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다른 나무의 등걸을 감거나

타고 올라가 어렵게 확보해 놓은 광합성의 공간을 혼자 점령해버리는 황포를 서슴치 않는다. 질서를 지키지 않은 침이나 등나무가 선의 경쟁에 길들어 있는 숲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갈과 등이 자랄 때 생기는 이런 현상이 바로 갈등이다.

옛 조선조의 선비들은 등나무의 이와 같은 특성이 대단히 못마땅하였다. 조선 중종 32년(1537) 홍문관 김광진 등이 올린 상소문에 '대체로 소인들은 등나무 덩굴과 같아서 반드시 다른 물건에 의지해야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하였고 중종34년(1539) 전주 부윤 이언적의 상소문에도 '군자는 소나무나 측백나무 같아서 홀로 우뚝 서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지만, 간사한 사람은 등나무나 겨우살이 같아서 다른 물체에 붙지 않고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고 하여 가장 멸시하던 소인배와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을 빚는 나무이던 소인배의 나무이던 관념적인 비유일 뿐이고 등나무만큼 유용한 나무도 없다. 흡사 아까시나무 잎 같으나 더 뾰족하고 작으며 한 여름의 뽕약별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고 5월이 되면 연한 보라 빛의 꽃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양은 녹음수로서만 아니라 꽃나무로서도 제 몫을 톡톡히 한다. 보드라운 털로 덮힌 열매는 콩 꼬투리 모양으로 너무 질푸른 등나무 잎사귀를 부드럽게 하는 액센트를 준다.

알맞게 자란 등나무 줄기는 지팡이 재료로 적합한데 영조41년(1764) 임금이 나이가 들어 걷기가 불편하자 신하들이 만년등(萬年) 지팡이를 받친 기록이 있다. 덩굴은 바구니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며 껍질은 매우 억세고 질겨 새끼를 꼬는 데, 또는 키를 만드는 데 쓰인다.

등나무 이야기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은 등가구에 쓰이는 '등나무'이다. 우리 주위에서 보는 쌍자엽 식물인 등나무와는 사돈의 팔촌도 넘는 전혀 다른 나무이다. 등가구의 등나무는 단자엽 식물이며 rattan 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대지방에 자란다. 쉽게 말하여 대나무의 일종인데 속이 꼭 차있는 것이 우리의 대나무와 차이점이다. 수심 미터씩 자라고 쉽게 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가구 만들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등나무는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 있는 천연기념물 254호, 경주시 건곡면 오류리의 89호, 부산 동래 범어사에 있는 176호 자생지 유명하다. 이 중 국무총리 공관의 등나무는 자그마치 나이가 9백년이나 되었으며 경주 오류리 등나무는 알려진 전설이 애처롭다.

아득히 먼 옛날 이 마을에는 용림이라 부르는 못이 있고 마음씨 착한 두 자매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마침 옆집에는 능글하고 씩씩한 청년이 있어 두 자매는 마음속 깊이 청년을 사모하고 있었다. 서로의 심정을 한번도 터놓고 말해보지도 못하고 지나던 어느 날 청년은 마침 변방에 전쟁이 일어나 갑자기 떠나버렸다. 손꼽아 기다린 보람도 없이 청년이 전사했다는 풍문이 두 자매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비로소 두 자매는 한 청년을 두고 다같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마을 앞 용림에 몸을 던져버렸다.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전에 없던 등나무 두 그루가 용림가에 자라기 시작하였다.

세월이 흘러 동네사람들은 두 자매의 슬픈 사연을 차츰 잊어갈 즈음 죽었다던 그 청년은 훌륭한 화랑이 되어 마을로 돌아왔다. 자기 때문에 용림에 몸을 던진 두 자매가 애처로워 내내 괴로워하던 그 청년도 어느 달 밝은 밤 용림에 풍덩 뛰어 들어버렸다.

다음해 봄이 되자 마땅히 타고 올라갈 나무를 찾지 못하여 바람에 흔들리기만 하는 두 그루의 등나무 옆에 나무 한 그루의 팽나무가 갑자기 쑥 쑥 자라기 시작하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등나무는 이 나무를 의지하여 크게 자랐으며 사람들은 용림에서 자란 등나무란 뜻으로 용등이라 불렀다.

● 측백나무(*Thuja orientalis* L.)

나무의 특성

총북 단양, 대구의 석회암지대 표고200~600m에서 회양목과 같이 自生하는 상록침엽교목으로 수고25m, 직경1m에 이르고 지리적으로는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석회암지대의 지표식생이며 건생식생으로 내건성, 내한성은 강하나 한풍해에는 약하고, 원래 양수이나 내음성이 다소 있으며 대기오염에도 강하다.

잎의 특성

잎은 비늘 모양으로 뾰족하고 倒卵形 또는 卵形으로 白色점이 약간 있다.

꽃의 특성

꽃은 자웅일가화로 4월에 피며 수꽃은 길이 2.0~2.5mm로 전년지 끝에 1개 달리며, 암꽃은 지름 2mm의 연한 자갈색이고 8개의 실편으로 구성된다.

열매의 특성

구과는 길이 1.5~2.0cm의 난형이고 9월에 익는다.

기타

수분 절약성 수목으로 맹아력이 강하고 생장이 신속하며 잎이 치밀한 줄은 수형을 만들 수 있으므로 생활타리로 많이 사용한다. 잎은 고혈압 치료제, 지혈제등으로 민간약에서 사용한다. 번식은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노천 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밑에서 많은 가지가 나와서 빗자루처럼 자라는 것을 천지백이라고 한다.

측백나무는 예부터 신선이 되는 나무로 알려져 귀하게 대접받던 나무다. 사당이나 묘지, 절간, 정원 등에 즐겨 심었는데, 특히 중국에서 사랑을 받은 듯 하다. 측백나무 잎이나 열매를 먹고 신선이 되었다거나 몇 백 년을 살았다는 얘기가 많이 전해진다. 옛날 진나라 공녀가 산으로 도망쳐서 선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소나무와 측백 잎만 먹고 살았더니 추위와 더위를 모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온몸에 털이 난 채로 2백 년 이상을 살았다고 한다. 또 적송자라는 사람이 측백나무 씨를 먹었는데 빠졌던 이가 다시 나왔다고 했으며, 백엽선인은 측백나무 잎과 열매를 8년 동안 먹었더니 몸이 불덩이처럼 되고 종기가 온몸에 돋았다가 깨끗이 나았는데 그 뒤로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며 결국 신선이 되어 우화 등선했다고 한다.

2004년 8월 17일 활동 결과물

1.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느낌

오늘 녹색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일일 보고서 (찾아가면서 느꼈던 느낌)

화! 정말 예뻐이다 그동안 주변기림종류 거의 본적이 없었는데, 모든 수목 색이나 왜 있었 다 특히, 다택나 등나무 같은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처음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녹색어르신 들께서는 민간지 출입금지 구역이라 한수 없이 사지만 보고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2개는 (장래라, 향나무) 옛날 임금님께서 살고 계시던 공간에 있었고, 2개는 뽕나무였다 들어보았던 울리관과에 위치하고 있었다. 녹색어르신께서 개인 장소도 촬영하지 만 이 일을 통한 것은 어르신들의 열정이 었다. 지금까지 보았던 어르신들은 이 녹색어르신에 비하면 색과 형태 같은 것 같았다. 겨우(?) 50여년정도까 지금까지 본 녹색어르신 중 최고의 격과 같았다. ~~원래~~ 오랜 전 ~~생물~~ 향나무 (등나무향나무 다택나)은 이 50여년이라는 수백 가지에 비하여 연로했다. 객관 가장 어린분은 600여년인 다택였다. 그리고 최고 고령과 계신 수백년 이상 되는 등나무 향나무 정향나무와 2004-2000=1304년이라는 고령과 계신 한참 위의 기록을 보면 500여년이다. 600년 된 다택나 나무에서 도 조성이 건조하고 태운것과 관계없이 4년 밖에 알리는 것 ~~현재~~ 현재까지 이루어 왔다. 밤에 한참이, 6.25을 우리 나라 역사(한일 전쟁-미국-중국)의 12.22일이다. ~~현재~~ 현재 한참이 정향 나무와 향나무다. 특히, 수목이 특히 향나무와 향나무 연로했다. 수목은 어르신들보다 수목 같은 것 같게는 ~~향나무~~ 향나무에 이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이 불가능 했다. 그 이유로는 이 어르신들은 향나무 때문에 수목 같은 것 수가 없다. 특히 향이 처음 보는 나무의 유형이다. 그 어르신 신변과 향나무이다. 또한 나무 위에 측백나무가 가장 많았고 크고 멋있었다. 정말 아름답다.

2. 녹색 어르신의 신상 메모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이 계신 주소	10-경기 서울특별시 중구 외동동 2가			합사	다택	폼새에 걸맞은 합사 나무				
녹색 어르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분	번지번호	256		유형	기타				
	지정연월	1995/09/02	지부	생육상태		유				
수목의 특성	수명	600년 수 수	0m	통고	630m		수관폭	0m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이 어르신은 600년 색이나 민오서서 느낌이 뭔가 신비스러웠다. 등을 같은 나무인데 630이나 되는 줄이 직경이라 0m이 커 보인다								
보호시설	입간면	0.0m x 0.0m	바닥상태	흙		보호책	유			
피해부위	잎의상태	양호한	수간상태	경		만경	경		생육상태	유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지속적인 관리와 끊임없는 관심과 일관된 설치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 이 계신 주소	110-260 서울특별시 종로 파동동 2가				한자	향나무			
					문제에 관한 한자	고향나무			
녹색 어르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천하별	지정번호	194		유 형	기타		
	지정연월	1968/03/04		지 부	생육상태 유				
수목의 특성	수 명	100년	수 고	6m	높이 지점	430cm	수관폭	2m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요선 엄청난 수령이 담백을 가해온다. 지금까지 본 향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늙은 것이다.							
보호시설	입간판	무	바닥상태	흙		보호책	유		
피해부위	위의상태	자연호	수간상태	경	안정성	경	생육상태	유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끊임없는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 입간판 설치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 이 계신 주소	110-230 서울특별시 종로 삼청동 청계관				한자	등나무			
					문제에 관한 한자	산신령			
녹색 어르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천하별	지정번호	254		유 형	기타		
	지정연월	1961/05/06		지 부	생육상태 유				
수목의 특성	수 명	750	수 고	4m	높이 지점	02m	수관폭	02m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아!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가장 신비스러 워 보인다. 그런데 옆에 덩굴같은 분이라 높고 길건과 수관폭은 꽤 수 없다.							
보호시설	입간판	무	바닥상태	흙		보호책	유		
피해부위	위의상태	자연호	수간상태	경	안정성	경	생육상태	유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무관리, 무관심이 가장 큰 것이다! 끊임없는 관리와 지속적인 관리와 입간판 설치.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 이 계신 주소	110-230 서울특별시 중구 삼학동 112-1		협자	측백나무		
			봉제에 접촉한 협자	김은이		
녹색 어르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생년월일	지정번호	255	유 명	기타
	지정연월	1986/07/06	지	류	생육상태	
수목의 특성	수 령	300년	수 고	11m	흉고 직경	225cm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이 나무는 도를 본 나무 중에 가장고 깊은 나무이다. 카~ 처음 보는 나무이기도 하고, 정말 멋있다.				
보호시설	입간판	무	바다상태	중	보호제	유
피해부위	의의상태	배설물	수간상태	경	안 정 성	경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심과 관심. 입간판 설치.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3. 녹색 어르신과의 교감과 봉양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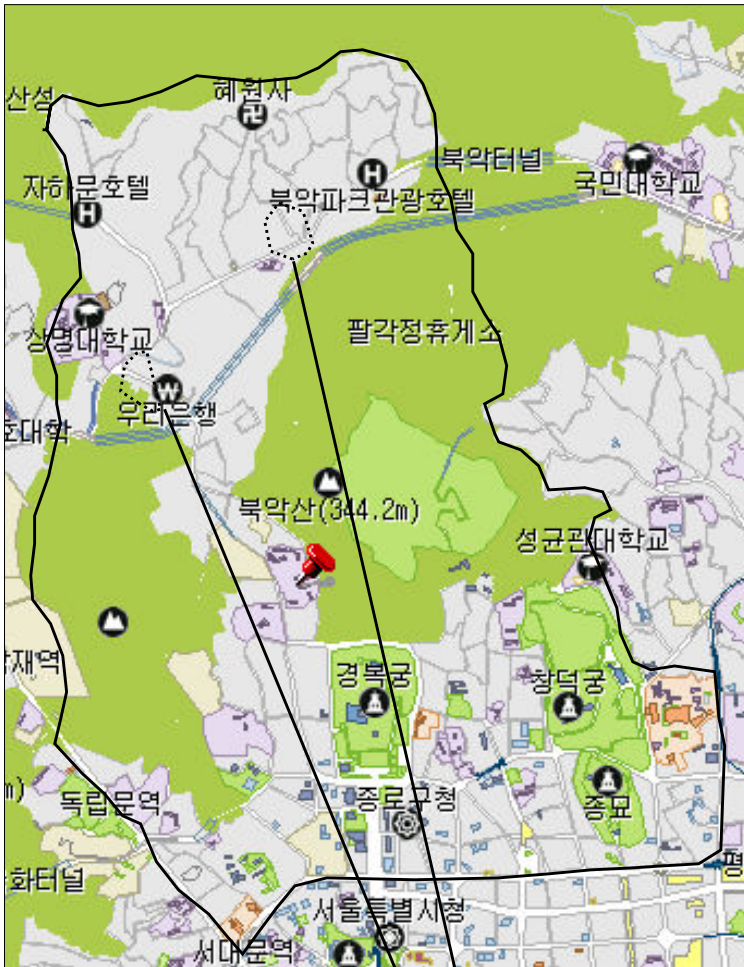
병상을 통한 녹색어르신 영성나누기 느낌 적어보기	
<p>원래는 어룡날 직접 가서 봤겠지만, 하지만 민간인 출입지역이라 교실에서 감상하게 되었다. 먼가 색다른 감상이라 신비스러웠고, 재미있었다. 내가 어르신이 되는 생각도 해보고, 대화도 하는 등 말 교실에서의 명상도 꽤 재밌었다.</p>	
<p>녹색어르신의 처한 상황 주변에 알리기 방법 만들어 보기</p>	
<p>주변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권유, 사진으로 또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켜 퀴서 들어가 본다.</p>	

활동 18			
세부 활동명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종로구 부암동, 평창동)		
교육일시	2004.08.28	교육장소	종로구 일원
		교육인원	27명
강사	성명	박 후 서	연락처
	약력	1. 대신고등학교 환경지킴이 동아리 지도교사. 2. MBTI 강사 3. 한국 환경교육학회 정회원 4. 한국 자생식물보존회 정회원 5. 그린웨이·그린스카우트 지도교사 협의회 중·고등부 회장 6.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회원	
교육내용	1. 녹색의 어르신 찾아가기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01 소재 소나무(지정번호: 서 1-16)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48 소재 소나무(지정번호: 서 1-17)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29-2 소재 소나무(지정번호: 서 1-28) 2. 녹색 어르신과 대화 나누기 ①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르신의 인상메모 ② 녹색 어르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③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르신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3. 녹색 어르신 소개하기 ① 녹색 어르신이 처한 실상을 어떻게 소개할까? 4. 관련 자료 첨부 ① 관련 환경현장교육 자료 ② 활동사진		
준비물	워크북, 필기도구, 줄자 20m 2개, Haglof Electronic Clinometer, 매트, 카메라, 필름, 녹음기, 쓰레기봉투	참고 자료	1. 인터넷: http://152.99.197.75/koreaplants/index.htm http://www.congnamul.com/ 2. 전영우, 2002. 「숲과 녹색문화」. 서울, 수문출판사. 3. 김감덕 외, 1994. 「숲·사람과 문화」. 서울, 탐구당 4.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
평가	1. 단원들이 우리의 정기가 서린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된 곳을 처음으로 탐방하면서 소나무의 낙낙장송의 기상을 명상을 통해 가슴 속에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프로그램 진행의 한 보람이 아닌가 한다. 2. 부암동 녹색 어르신은 조선 말 흥선 대원군과 아주 인연이 깊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슴 속에 많은 사연을 담은 녹색 어르신의 덕담을 듣기 위한 우리들의 녹색 어르신들의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것이다. 3. 단원들이 어렵게 찾아가간 평창동의 두 녹색 어르신은 풍채는 그리 크지 않지만 소나무의 범상치 못할 기상을 마음껏 펼쳐 단원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단원들은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였다.		

일 정 표

시간 (이동방법)	일정	세부 내용	비 고
09:30 - 10:20 (도보 및 버스)	22차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 및 도착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01 소재 소나무(지정번호: 서 1-16)	- 지도교사 인솔 (교통사고 주의)
10:20 - 11:10	녹색어르신과 대화나누기	-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른신의 신상메모 - 녹색 어른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 가 있을까? -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른신이 계속해서 남 아 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 명상을 통한 녹색 어른신과 영성 나누기 - 녹색어르신에 대한 주변 알리기 방법 구안	- 지도교사 교육지도 - 워크북 참조
11:10 - 11:20	간식 및 주변 청소	- 간식 - 주변 청소	- 지도교사 지도
11:20 - 12:30 (도보 및 버스)	23, 24차 녹색 어른신 찾아가보기 (지도 참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48 소재 소나무(지정번호: 서 1-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29-2 소재 소 나무(지정번호: 서 1-28)	- 지도교사 인솔 (교통사고 주의)
12: 30 - 13:30 (귀가)	점심시간	- 맛있는 점심 먹기	- 근처 식 당 이용

종로구 지역에 관한 지도



제 22, 23, 24차 녹색어르신
찾아가기 지역



녹색어르신에 대한 정보

● 소나무(*Sophora japonica* L.)

나무의 특성

북부의 고원지대를 제외한 전국의 표고1,300m 이하에서 자생하고 지리적으로는 일본, 만주에 분포하는 상록침엽교목으로 수고35m, 직경180cm에 달한다. 극양수로서 양지인 곳에서 천연하중경신이 잘 이루어지며 대단위 군계를 형성하고 내건성이 높아서 건조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며 내한성도 대단히 강하다.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은 보통이나 병충해에는 약한 편이다. 뿌리는 직근성으로 일시 이식은 불량하나 이식기술의 발전으로 근래에는 높은 활착율을 갖는다. 줄기는 보통 붉은색이고 오래된 수피는 흑갈색이다.

잎의 특성

잎은 2개씩 속생하고 비틀리며 길이 8-9cm, 넓이 1.5mm로서 일부분의 잎은 2년 후에 떨어진다.

꽃의 특성

꽃은 암수 따로 피는 자웅이화이나 자웅일가화인 것도 있으며 수꽃 이삭은 길이 1cm내외로 장타원형이며 황색이고 암꽃 이삭은 난형으로 자색이다. 5월에 꽃이 핀다.

열매의 특성

열매는 길이 4.5cm, 지름 3.0cm의 구과로서 난상원추형이며 이듬해 9~10월에 황갈색으로 익는다.

기타

목재는 재질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강인하고 무늬가 아름다워 건축용재, 일반용재, 펄프재로 좋으며 솔잎, 수피중 내피, 송진, 송화가루는 식용도 할 수 있으나 약용으로서 가치가 높다. 소나무는 각종 공해에는 약하나 철저한 관리를 하면 도시에서도 생육이 좋으므로 아름다운 수형을 감상하는 관상수로 훌륭하다. 일부분에서 굵은 가지가 갈라지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여러 개의 붉은 줄기가 수형을 만드는 것을 다행송이라 하며, 접목에 의하여 증식되며 강원도 태백산 중심으로 자생하는 줄기가 곧고 마디가 긴 것을 금강송이라 하며 중요조림수종으로 취급한다.

2004년 8월 28일 활동 결과물

1.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느낌

오늘 녹색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일평 느낌 적어보기 (찾아가면서 느꼈던 느낌)

노거수 찾으러 가는 길이다. 오늘 찾아가길 녹색어르신은 바로 '소나무'이다. 소나무는 언제 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한결같은 나무인 것 같다. 모두 3그루씩 소나무를 찾아왔다. 먼저 부생들의 석과절 먼저 있는 이 소나무는 대략으로 관찰해 보려는 것 같았다. 이곳 석과절은 햇날 줄 선 대원군의 별장이있던 곳이다. 거다가 대원군의 살던 곳의 나무인 반면 여기는 '적송'이라 적송은 소나무의 잎이 붉고, 가지 끝이 있는 늙은 석과절 보기 때문이다. 소나무 죽기 가장 최근의 나무는 바로 '금강송'이다. 토양의 수습조건이 좋지 비옥한 곳에서 자라는데, 줄기가 굵고 수관이 좁으며 연륜 폭이 균등하고 등으며 목리가 굵다. 옛날에 금강을 자를 때 여기서 썼다고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 소나무 가운데 가장 최우수 소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석과절 옆에 이 적송은 지상 1.0m에서 굵은 가지를 축으로 옆으로 뻗거나 평평한 수관을 형성하여 불리한 나무인 것 같다. 아마도 이 나무를 살려면 온 주 피나 줄 것 같다. 이곳 석과절은 죽번 경치가 제일 관할한다. 여기서 그림을 그리다면 어느 정도 윤치가 있을 것 같다. 반면에 가지로 인해 지지대를 세워 놓았는데, 좀 더 생선도 관찰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외에 다른 소나무 2그루를 찾아가 보았다. 적송과는 달리 그냥 뻗은 소나무였다. 어느 소나무와 같아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 그냥 뭐 죽이나 수형 등 특이한 바림이 있을지 본다. 한 나무는 수관이 26m이다. 둘레가(주)13m나 됐다. 세가 그 적송(주 5m)에 비하면 이적야 지대로 된(주) 노거수를 만년 기쁨이 든다...! 마지막으로 찾은 소나무는 바림 한 소나무만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눈이 보이는 느낌이 있었다. 향은 천 소나무는 사람으로 치자면 머리숱이 많은 것이! 마지막으로 찾은 나무는 머리숱이 적어서 약간 앙상하게 보인다. 오늘 소나무를 탐방하면서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떤 소나무는 관외가 오로해서 생육상태가 불만족 보이는 나무가 있는 반면, 어떤 소나무는 화에 죽번들의 관찰을 할었다. 저 나무가 보았는지 노거수였는지 모르지는 주면로 있었다. 이러한 보로수 지경의가 보자 죽번의 관찰이 없으면 많이 보로수지 길게까지 가로나 다들 많이 많은가? 그렇고 보로수를 지적 되있는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보로수에 애정을 가지면, 관찰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우리보다 몇 백년을 더 사신 녹색어르신이 아닌건? 노거수는 그 자체만으로 문화재라고 생각된다. 한 시대를 거치면서 온갖 모진 풍요로 거지고 살아온 노거수기 경복을 볼한다. 그러나 우리는 녹색어르신이 관할 가지, 가꾸고 보로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3그루의 나무를 찾아가서 느꼈던 의미는 어떤지.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으면 한다.

2. 녹색 어르신의 신상 메모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 이름	서울시 중구 북암동 2이	합자	소나무			
주소	110-817	분제에 집짓는 합자	문어 반			
녹색 어르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보훈수	지정번호	서 1-16	유 형	풍치목
	지정연월	1968. 7. 3	지 부	대지	생육상태	목
	수 령	216년	수 고	5m	흉고 직경	288/92 27cm
수목의 특성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문어같이 생겼는데, 기둥으로부터 뻗어난 가지들 문어발 같은 느낌이었다. 적송보다 그린이 어딘가 모르게 거침이 있어 보인다.				
보호시설	입간판	목	바닥상태	목	보호제	무
피해부위	외의상태	보통	수간상태	중	안정성	중
					생육상태	목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관리를 잘하고, 입간 판이나 보호제를 세운다.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 도
		적갈색	100	1.5	유	2.0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 이름	서울시 중구 광안동 248	합자	소나무			
주소	110-847	분제에 집짓는 합자	부			
녹색 어르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보훈수	지정번호	서 1-17	유 형	풍치목
	지정연월	1968. 7. 3	지 부	대지	생육상태	유
	수 령	266년	수 고	13m	흉고 직경	224/71 22cm
수목의 특성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수채와 색깔이 그리든 못 같이 나무가 귀·양 옆으로 자라 나 있다. 그리고 무성해 보인다.				
보호시설	입간판	목	바닥상태	중	보호제	유
피해부위	외의상태	보통	수간상태	중	안정성	중
					생육상태	유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주변 사람들이기 알린다.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 도
		연갈색	100	3.0	무	2.3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 이 계신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29-2		한자	소나무		
	110-847		봉투에 넣으신 일자	먼지떨이		
녹색 어르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보통수	지정번호	서 1-28	유 별	종지목
	지정연월	1968. 7. 3	지 부	대지	생육상태	뚜
	수 명	216년	수 고	12m	흉고 직경	158/50
	수관폭	10m				
수목의 특성	일반 소나무처럼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바위에서 말라자 면 어리둥elig 같은 것 같다. 등성등성 구간 게 나무가 적어보기					
보호시설	입간판	90cm x 60cm	바탕상태	증	보호책	뚜
피해부위	위의상태	보통	수관상태	증	안정성	증
					생육상태	뚜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주도록 한다. 풍가다가 거름(명양분) 을 공급해 주도록 한다.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 도
		적갈색	100	2.0	무	1.5

3. 녹색 어르신과의 교감과 봉양 대책

명상을 통한 녹색어르신 명성나무기 느낌 적어보기	
소나무 아래에서 느낀 점	느낀 점 녹색 어르신에 대한 명상 시간을 갖었다. 조용한 정적이 흐르면서 뭔가 느껴지게 된다. 이 나무가 여니 이 녹색어르신이 거쳐온 험난한 세월을 느끼 고려보았다. 광대한 자연의 힘이 맞아서 오늘날 이 같이 곳곳이 버티는 어르신의 독지와 인내를 느낀 것 같다. 주변 사람들도 이 같은 느낌을 (명상을 통한) 공유하고 싶다.
녹색어르신의 치한 상황 주변에 알리기 방법 만들어 보기	
1.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2.	녹색어르신이 있는 (소속된)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에게 알린다.
3.	광고처럼 만들어서 인러내기 키한다.

활동 19

세부 활동명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종로구 인의동, 연지동)		
교육일시	2004.09.11	교육장소	종로구 일원
		교육인원	27명
강사	성명	박 후 서	연락처
	약력	1. 대신고등학교 환경지킴이 동아리 지도교사. 2. MBTI 강사 3. 한국 환경교육학회 정회원 4. 한국 자생식물보존회 정회원 5. 그린헤밀리·그린스카우트 지도교사 협의회 중·고등부 회장 6.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회원	
교육내용	1. 녹색의 어른신 찾아가기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30 소재 은행나무(지정번호: 서 1-3)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 소재 은행나무(지정번호: 서 1-5)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소재 회화나무(지정번호: 서 1-4) 2. 녹색 어른신과 대화 나누기 ①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른신의 신상메모 ② 녹색 어른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③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른신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3. 녹색 어른신 소개하기 ① 녹색 어른신이 처한 실상을 어떻게 소개할까? 4. 관련 자료 첨부 ① 활동사진 ② 관련 환경현장교육 자료		
준비물	워크북, 필기도구, 줄자 20m 2개, Haglof Electronic Clinometer, 매트, 카메라, 필름, 녹음기, 쓰레기봉투	참고 자료	1. 인터넷: http://152.99.197.75/koreaplants/index.htm http://www.congnamul.com/ 2. 전영우, 2002. 「숲과 녹색문화」. 서울, 수문출판사. 3. 김갑덕 외, 1994. 「숲·사람과 문화」. 서울, 탐구당 4.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
평가	1. 단원들은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도심 속에서 400년 넘게 당신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온 녹색 어른신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활동이 되었다. 2. 은행나무 두 녹색 어른신 중 인의동의 녹색 어른신은 길가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존대 받지 못하는 인상을 받았지만, 연지동의 녹색 어른신은 회사 건물 앞에 있어 회사의 품위를 높여주어 사랑을 받는 어른신으로 희비의 차가 너무도 크게 나타난다. 3. 연지동의 회화나무 녹색 어른신은 좁은 곳에 외롭게 400년을 넘게 천대받으며 살아오셨는데 최근 일제시대 독립활동과 연관된 것이 밝혀져 앞으로 서울시 독립군 나무로 지정될 예정으로 서울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단원들의 탐사가 보람된 일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4년 9월 11일 활동사진

비가오는 가운데에서도 녹색 어르신을 찾아가는 모습



독립군 나무인 연지동 녹색 어르신(회화나무)의 탐방



인의동 녹색 어르신의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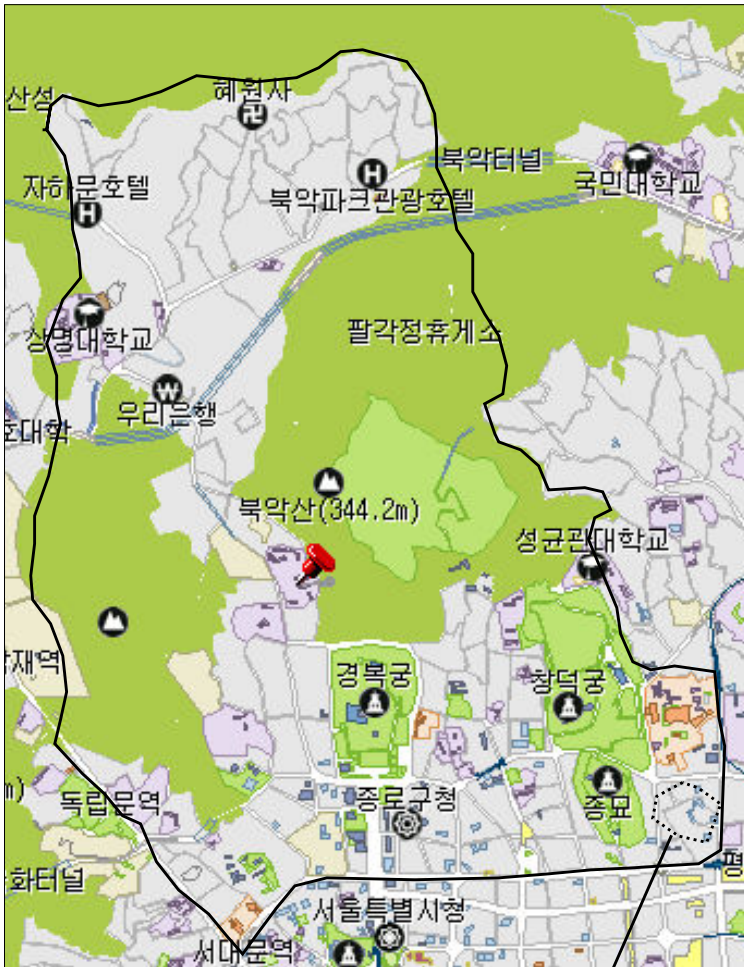
연지동 녹색 어르신의 유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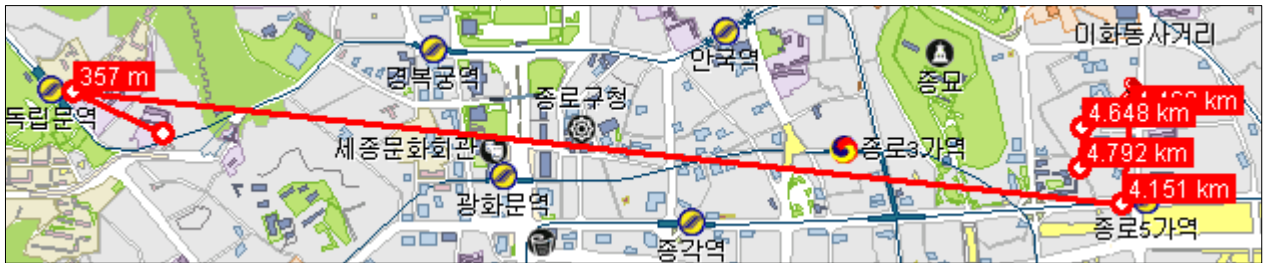
일정표

시간 (이동방법)	일정	세부 내용	비고
09:30 - 10:20 (도보 및 버스)	25차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 및 도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소재 회 화나무(지정번호: 서 1-4)	- 지도교사 인솔 (교통사고 주의)
10:20 - 11:30	녹색어르신과 대화나누기	-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른신의 신상메모 - 녹색 어른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 가 있을까? -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른신이 계속해서 남 아 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 명상을 통한 녹색 어른신과 영성 나누기 - 녹색어르신에 대한 주변 알리기 방법 구안	- 지도교사 교육지도 - 워크북 참조
11:30 - 11:40	간식 및 주변 청소	- 간식 - 주변 청소	- 지도교사 지도
11:40 - 11:50 (마을버스)	26,27차 녹색 어른신 스스로 찾아가보기 (지도 참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30 소재 은 행나무(지정번호: 서 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 소재 은행 나무(지정번호: 서 1-5)	- 지도교사 인솔
11:50 - 12:30	녹색어르신과 대화나누기	-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른신의 신상메모 - 녹색 어른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 가 있을까? -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른신이 계속해서 남 아 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 지도교사 교육지도 - 워크북 참조
12:30 - 13:30 (지하철 귀가)	점심시간	- 맛있는 점심 먹기	- 근처 식 당 이용

종로구 지역에 관한 지도



제 25, 26, 27차 녹색어르신
찾아가기 지역



2004년 9월 11일 활동 결과물

1.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에 대한 느낌

오늘 녹색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일일 느낌 적어보기 (찾아가면서 느꼈던 느낌)

중요하는 나란 꽃은 파는 정도로 휴양 공간이 많았지만 그만큼 소나무에 대한 남부도 제법 되어 있어
 관련 생각했다. 약으로 표본화한 건과함께 한 정이라는 큰 나무에 특별히 제3 탐지를 하였다.
 이면이든 소수정예가 아닌과 1학년은 주변에서 해사 갔다. 제일 먼저 찾아가 곳은 동양대학교에서다.
 건물의 앞쪽 외곽에 소나무가 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양호했다. 가리개 하나 깔아놓고 주변에
 든 색이까지 가리개 대지는 수관쪽의 수순은 화살이 있어 없었다. 전장에서 이리저리
 는 여왕이 못만 보면 아주 풍부했다. 인터뷰는 몇 개서 가졌다. 사슴 사슴은 알았다면
 한참의 때이제는 할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수관에는 기름진과피로만 관여 하는 소나무들은
 활짝웃는데 어떤 화살을인지 기우나서 않는다. 아랫은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 두번째 나무
 트이렇게 아래쪽에 가지가 있었다. 아래 층의 영양을 영하게 보였다. 그리 마지막으로
 어떤 불꽃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나무는 구리와 연기를 함께 흡수하는 존재였다.
 대나무기억한 나무와 관련된 나무 이진 것 같다. 거기다 가장 쉬운 단어와 극한으로 가는 큰가리
 영타입은 비속한것의 다른 이제 영이 다 되어 가는 것 같다. 다행히 그게 신성한 나무 소나무
 는 되었다

오늘 녹색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일일 느낌 적어보기 (찾아가면서 느꼈던 느낌)

비 오는 날에 조사를 나가서 그리지 매우 힘들었다. 첫번째 나무는 상태가
 좋지었는데 다행인 것은 대지가 흙이라는 것이고 흙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이었다. 두번째 나무는 큰 건물과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태
 는 중간 정도로 보였어도, 소를 때문에 매우 심각해서 잘 수 있는 것 같다. 마
 지막 나무의 상태는 정말 좋지 않았고 그 나무를 만나러 가는 것 조차 힘
 든 정도였다. '정원에서 관리하는 한가' 라는 의무까지 생겼다.

오늘 녹색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일일 느낌 적어보기 (찾아가면서 느꼈던 느낌)

저번 탐험고서에 이어서 두 번째 녹색어르신을 찾아
 방문 갔다. 모든 여려내움을 찾아 갔다. 먼저 찾아간
 나무는 많이 큰 은행나무였다. 내가 와서 전하는데 많이 불편
 했지만 열심히 하고, 풍경 했다. 이 큰나무는 지금까지 보면
 나무 중에 가장 큰 것 같다. 흙 양 타카하면 같은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 나무는 계속 자라는 끈기
 만리가 있으면 잘 자랄 것 같다.
 그 다음에 찾아간 나무는 흙부터 염증이 있다. 은행나무에
 정은 두리하게

2. 녹색 어른신의 신상 메모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 신이 계신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22-30	합차	은행나무
		동시에 입찰하는 합차	외국인
녹색 어르신과 대화내용			
상세정보	구 분	주소	지정번호
	178	10	21
	지 부	대지	생육상태
	수 령	25.6 (49%)	수 고
	20.9m	통 고	18.5m
		적 경	
수목의 특성	1.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2.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3.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4.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5.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6.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7.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8.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9.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10.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보호시설	일관관	유	바닥상태
			중
피해부위	의외상태	중	수관상태
			중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1.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2.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3.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4.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5.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6.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7.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8.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9.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10. 10년에 걸쳐서 건물 안 주변에서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 도
		갈색	75	3.0	무	1.0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이 계신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연희동 263			회사	은행나무	
				봉사에 임하는 회사	도매비나무	
녹색 어르신과 대화 나누기						
상세정보	구분	보로수	지정번호	신-5	유형	풍채목
	지정연월	1981.10.27	지부	CH지	생육상태	중
수목의 특성	수령	465(400)	수고	15.5m	흉고 직경	275cm
					수관폭	14.1m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이 나무는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결단코 심어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심는 것은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입니다. 나무 마켓팅이 많이 나갔을 것이지만 수목의 느낌을 적어보겠습니다.					
보호시설	입간판	有	바닥상태	흙(이차도)	보호제	無
피해부위	일의상태	중	수간상태	중	안정성	중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보충조사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도
		회갈색	100	3.0	무	2.7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이 계신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연희동 135-74			회사	희로나무	
				봉사에 임하는 회사	도매비나무	
녹색 어르신과 대화 나누기						
상세정보	구분	보로수	지정번호	신-4	유형	풍채목
	지정연월	1981.10.27	지부	중	생육상태	하
수목의 특성	수령	515(538)	수고	22.3m	흉고 직경	394cm
					수관폭	16.7m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전체는 상록수지만 잎이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환경은 좋은 나무가 많이 심어졌지만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죽은 나무는 심지 않습니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입간판	有	바닥상태	흙	보호제	有
피해부위	일의상태	중	수간상태	하	안정성	하
녹색 어르신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등대시설, 조명, 배수관 등의 배수관 교체하기 등.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도
		짙은 갈색	50	3.0	유	1.7

3. 녹색 어르신에 대한 주변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소재 회화나무(지정번호: 서 1-4)는 옛 정신여고 교정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녹색 어르신은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한 비화가 서려있다. 3·1 만세운동의 여파로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1919년 11월경, 정신여학교(정신여고의 전신) 교사와 학생들은 이 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나라 잃은 설움과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피어나는 청춘의 꿈을 나누곤 한 곳이다. 녹색 어르신과 ‘애국부인회 사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애국부인회 사건은 이러하다. 정신여학교 학교 4회 졸업생으로서 당시 교사로 재직하던 김마리아 선생은 역시 이 학교 출신인 이해경, 황에스더, 이정숙 등과 함께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를 조직해 여성항일 운동을 벌이던 중 한 간부의 배신으로 애국부인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제는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 김마리아, 장선희, 이정숙, 김영순 등 애국부인회 핵심 간부 9명을 기소했고 43명을 불기소한 것이다. 이 때 애국부인회의 비밀본부 격이던 정신여학교에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 애국부인회 명부를 찾기 위해 학교를 샅샅이 뒤졌으나, 조직원 명부는 찾지 못했던 것이다.

정신여고 관계자와 여성 항일 운동가의 후손들은 최근 서울 시내의 고목 실태 파악에 나선 전문가들에게 “애국부인회 활동을 하던 교사들은 일본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조직원들의 신상명세를 적은 비밀문서, 태극기 등을 운동장 옆 회화나무 밑에 묻어 놓았다” 라고 하였다. 이들은 또 “한 국사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국사 교과서와 노트까지도 나무 밑에 넣어 뒀다고 전해진다.” 고 말하였다.

활동 20			
세부 활동명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종로구 명륜동)		
교육일시	2004.09.25	교육장소	종로구 일원
		교육인원	27명
강사	성명	박 후 서	연락처
	약력	1. 대신고등학교 환경지킴이 동아리 지도교사. 2. MBTI 강사 3. 한국 환경교육학회 정회원 4. 한국 자생식물보존회 정회원 5. 그린웨이·그린스카우트 지도교사 협의회 중·고등부 회장 6.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회원	
교육내용	1. 녹색의 어르신 찾아가기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소재 은행나무(지정번호: 천연기념물 59) 2. 녹색 어르신과 대화 나누기 ①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르신의 신상메모 ② 녹색 어르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③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르신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3. 녹색 어르신 소개하기 ① 녹색 어르신이 처한 실상을 어떻게 소개할까? 4. 관련 자료 첨부 ① 활동사진 ② 관련 환경현장교육 자료		
준비물	워크북, 필기도구, 줄자 20m 2개, Haglof Electronic Clinometer, 매트, 카메라, 필름, 녹음기, 쓰레기봉투	참고 자료	1. 인터넷: http://152.99.197.75/koreaplants/index.htm http://www.congnamul.com/ 2. 전영우, 2002. 「숲과 녹색문화」. 서울, 수문출판사. 3. 김감덕 외, 1994. 「숲·사람과 문화」. 서울, 탐구당 4.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
평가	1. 단원 2. 동아리		

2004년 9월 25일 활동사진

녹색 어른신의 풍채의 상태를 탐사하는 모습



녹색 어른신과 우리의 삶의 관계 토론 장면



문묘에서 녹색 어른신과 명상을 통해 교감을 나누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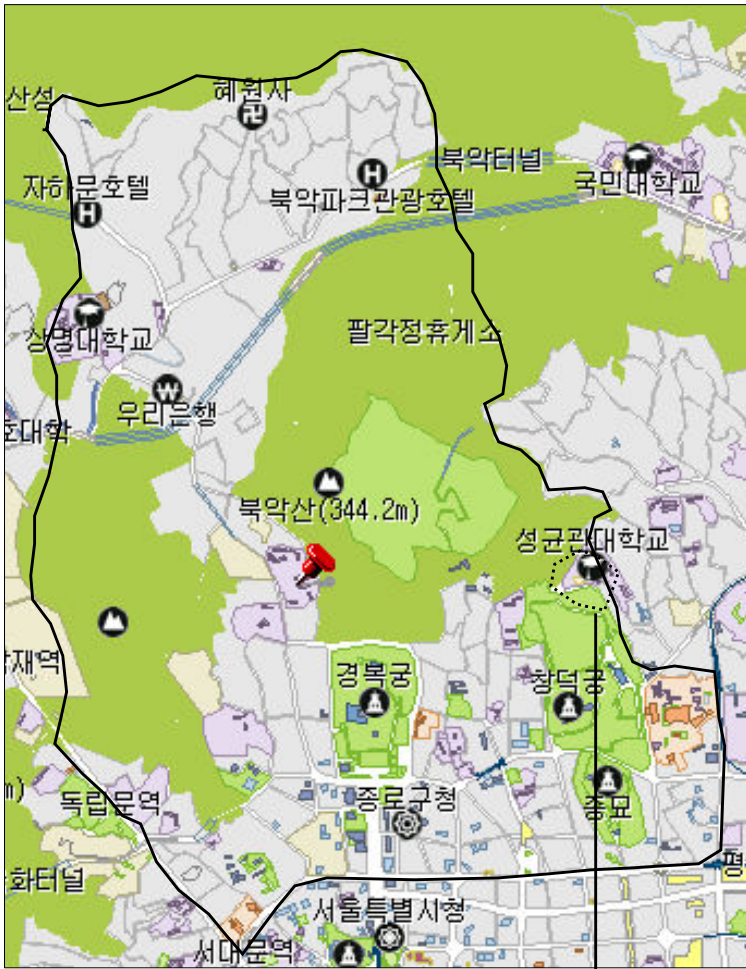
문묘 주변의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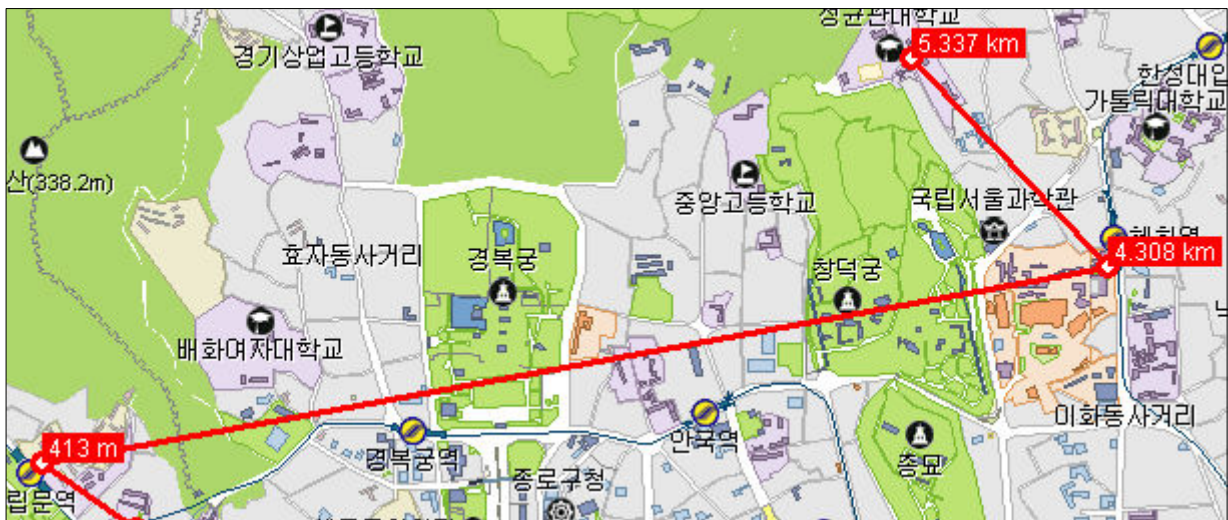
일 정 표

시간 (이동방법)	일정	세부 내용	비 고
09:30 - 10:20 (도보 및 지하철 마을버스)	28차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및 도착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소재 은 행나무(지정번호: 천연기념물 59)	- 지도교사 인솔 (교통사고 주의)
10:20 - 11:30	녹색어르신과 대화나누기	-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르신의 인상메모 - 녹색 어르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 가 있을까? -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르신이 계속해서 남 아 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 명상을 통한 녹색 어르신과 영성 나누기 - 녹색어르신에 대한 주변 알리기 방법 구안	- 지도교사 교육지도 - 워크북 참조
11:30 - 11:40	간식 및 주변 청소	- 간식 - 주변 청소	- 지도교사 지도
11: 40 - 13:30 (지하철 귀가)	점심시간	- 맛있는 점심 먹기	- 근처 식 당 이용

종로구 지역에 관한 지도



제 28차 녹색어르신 찾아가기 지역



녹색어르신에 대한 정보

성균관대학교 정문 수위실 앞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공자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文廟)가 자리잡고 있다. 문묘는 행사가 있을 때만 개방하였으나 요즘은 거의 매일 출입문이 열려 있어서 관람하기가 편리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려 땅이 밟혀서 단단해 지는 것이 문제이다.

문을 들어서면 문묘의 널찍한 명륜당(明倫堂) 앞마당에 크기가 거의 같은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10여 m거리로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이외에도 아름답디 회화나무, 느티나무, 말채나무, 단풍나무, 팔배나무 등이 마당의 가장자리를 둘러쌀듯이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입구 쪽의 은행나무인데 나머지 한 그루도 이에 못지 않게 크고 웅장하다. 조선 중종 14년(1519)에 대사성 윤탁이 심었다는 설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으며 대체로 문묘가 창건된 뒤에 심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명륜당 남쪽 담과 나란히 이어진 대성전(大成殿)뜰에도 명륜당 은행나무와 크기가 비슷한 2그루의 은행나무가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나이나 크기가 거의 비슷한 문묘의 4그루 은행나무 중 1그루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선조31년(1597) 10월20일에 성균관에서 관학의 양성에 대해 건의하였는데, '명륜당의 옛터는 절반이나 길로 들어가고 벽송정(碧松亭)의 앞길은 무성한 잡초로 덮여 조석으로 중국의 말이 떼를 지어 행단 아래에서 풀을 뜯어먹고, 중국 군대는 재실 밖에서 떠들썩하여 수 백년 동안 성인을 존송하고 선비를 양성하던 곳이 이 지경이 되었으므로 식자들은 눈물을 뿌렸다' 하여 임진왜란 때 들어온 중국군의 행패가 이곳 행단(杏壇)에 까지 이르렀음을 볼 수 있다

천연기념물 은행나무는 키가 21m, 줄기의 가슴높이 둘레가 7.3m이며 나이는 약 4백년으로 추정하고 있고 바로 옆의 나무는 둘레가 4.2m 정도로 약간 작다. 가지의 길이는 동서 22m, 남북도 22m로서 거의 완전한 원뿔모양이다. 이 은행나무의 특징은 원 줄기가 죽은 후 나무 밑에서 7개의 줄기가 자라서 원줄기 크기와 같이 자랐다고 하나 지금은 서로 붙어버려 완전한 큰 하나의 줄기처럼 보인다. 가지의 발달이 왕성하며 더욱이 두 그루가 같이 붙어 있어서 모양새의 웅장함은 명륜당에서 공부하던 옛 유생들의 위엄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듯하다. 문묘의 4그루 모두 수나무로서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옛날에는 모두 암나무이었는데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져 문묘의 엄숙함에 방해가 되자 수나무가 되어 달라는 제사를 올렸더니 모두 수나무가 되어 버렸다고 한다. 글썄? 제사 한번에 암수가 뒤바뀔 수 있다면 세상 참 어지러워 질 것 같다.

이 은행나무는 기근(氣根)인지 비정상조직인 흑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남쪽으로 뻗은 굵은 가지에서 아래로 방망이를 붙여 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유주(乳柱)라는 것이 달려 있다. 3개의 유주가 같이 달려 있는데 2개는 길이가 길고 하나는 짧다. 다른 가지에 또 한개의 유주가 더 있어서 모두 4개가 있는 셈이다. 유주가 달리는 은행나무는 이것 말고도 천연기념물 302호인 의령 유곡면의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화순의 은행나무 등 몇 그루가 도 있으나 모양은 다양하다.

유주는 우리나라 은행나무에서는 흔하지 않으나 일본의 은행나무에서는 아주 흔하고 그 발달도 현저하다. 모양새가 젓 모양이면서 기둥처럼 생겼다가 유주란 이름이 생겼고 일본에서는 젓이 잘 나지 않은 아낙이 치성을 하는 대상이라고도 한다. 문묘 은행나무의 유주는 젓 모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성의 심벌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2004년 9월 25일 활동 결과물

1.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에 대한 느낌

오늘 녹색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일경 느낌 적어보기 (찾아가면서 느꼈던 느낌)

전에 대학로의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나무를 몇 그루 본적이 있다. 아무래도 그 나무가 지금 찾아갈려는 나무인 것 같다. 무척 기대 되면서도 걱정이 된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나무를 만날 수 있을지..."

2. 녹색 어른신의 신상 메모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 이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가 53번지 (신원대입구)	합사 봉쇄에 원하는 합자	은해나무
녹색 어르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u>신원대입구</u> 지정번호 57호 유 형 <u>단식목</u>	지정연월 <u>19.12.3</u> 지 목 <u>총</u> 생육상태 <u>건강</u>	수 목 의 특성
	수 목 <u>530</u> 수 고 <u>200</u> 수 직경 <u>11.9</u> 수관폭 <u>2.2</u>	수목의 특성 이름이 <u>은해</u> 라는 나무가 유래한 것 같다. 수피의 색깔은 <u>흰색</u> 과 <u>회색</u> 이 있다. 그리고 <u>잎</u> 은 <u>매끄러운</u> 느낌이 있는 <u>바나나</u> 의 느낌이 나는 <u>잎</u> 이다.	
보호시설	입관판 <u>있음</u> 비파상판 <u>없음</u> 보호제 <u>있음</u>	녹색 어르신의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피해부위	일의상태 <u>중간</u> 수간상태 <u>없음</u> 안전성 <u>상</u> 생육상태 <u>건강</u>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 도
		연회색	100	3.0	유	3.0

3. 녹색 어른신에 대한 주변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

유입리민 수위실에서 인터뷰

녹색어르신에 관련된 인터뷰

1. 노거수에 관련된 철화나 관련 기록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리우에 이 나무 심었어고 한다. 그런데 이곳이 밭농사여서 공복하는 규방들이 함치이 풀기(알기) 의해서 견디
 난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에서 심었다가 수컷이 되게 해 주고 기린했다고 한다. 물론 만개나 열매나 자만
 그 기린에 화해서 오렸고 번졌다는 설이 있다.

오일영 어머님이
말씀이

2. 최근 노거수 주변 주민들께서 노거수에 대해 관심을 하는 행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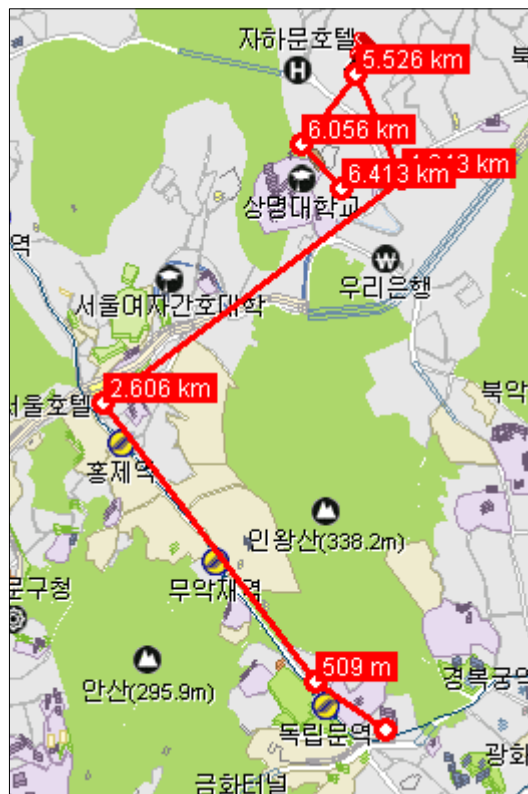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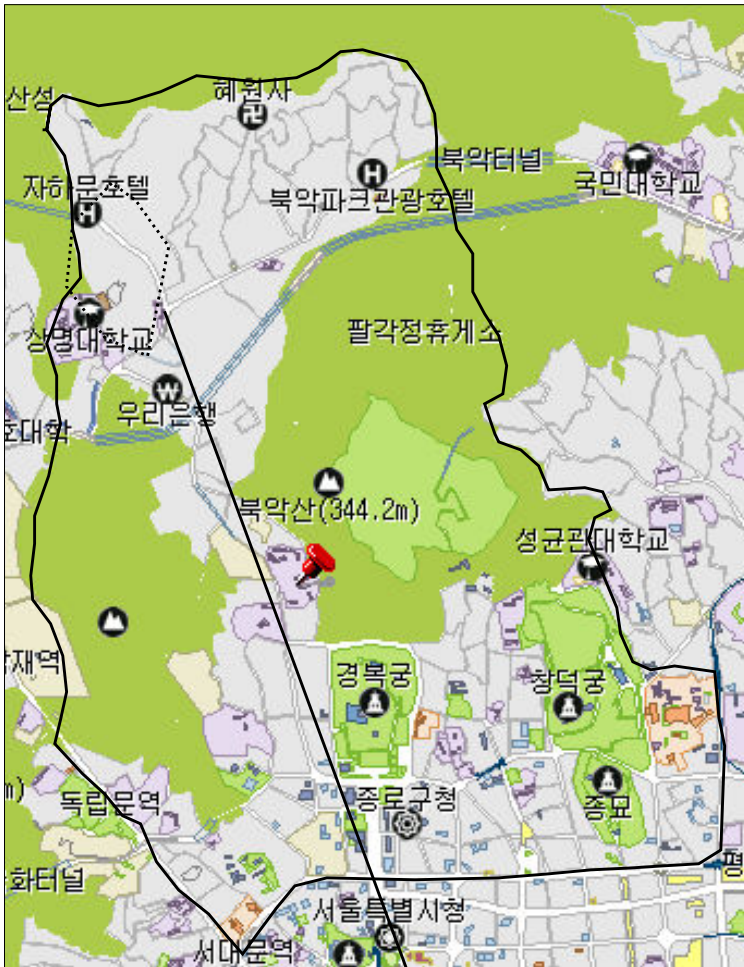
3. 최근 노거수 관리를 위해 수행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늘이 씨 뿌려 순살을 한다.

활동 21			
세부 활동명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종로구 구기동, 신영동, 사직동)		
교육일시	2004.10.03	교육장소	종로구 일원
		교육인원	27명
강사	성명	박 후 서	연락처
	약력	1. 대신고등학교 환경지킴이 동아리 지도교사. 2. MBTI 강사 3. 한국 환경교육학회 정회원 4. 한국 자생식물보존회 정회원 5. 그린헤밀리·그린스카우트 지도교사 협의회 중·고등부 회장 6.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회원	
교육내용	1. 녹색의 어른신 찾아가기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81-38 소재 소나무(지정번호: 서 1-11)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52 소재 느티나무(지정번호: 서 1-22)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40-1 소재 느티나무(지정번호: 서 1-6)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39 소재 느티나무(지정번호: 서 1-19) 2. 녹색 어른신과 대화 나누기 ①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른신의 신상메모 ② 녹색 어른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③ 우리 삶 속에 노객 어른신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3. 녹색 어른신 소개하기 ① 녹색 어른신이 처한 실상을 어떻게 소개할까? 4. 관련 자료 첨부 ① 관련 환경현장교육 자료 ② 활동사진		
준비물	워크북, 필기도구, 줄자 20m 2개, Haglof Electronic Clinometer, 매트, 카메라, 필름, 녹음기, 쓰레 기봉투,	참고 자료	1. 인터넷: http://152.99.197.75/koreaplants/index.htm http://www.congnamul.com/ 2. 전영우, 2002. 「숲과 녹색문화」. 서울, 수문 출판사. 3. 김갑덕 외, 1994. 「숲·사람과 문화」. 서울, 탐구당 4.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
평가	1. 녹색 어른신의 탐방 마지막 활동이다. 이전 단원들이 알아서 탐방을 통해 녹 색 어른신의 특징을 잘 정리를 한다. 현장 환경 교육이 이렇게 단원들을 변 화시킨 것이다. 2. 녹색 어른신을 탐방 하는 가운데 토속 신앙과의 관계를 찾지 못했으나, 이번 활동에서 여신을 모시는 성황당과 또 이곳을 관리하는 할머니를 만나 우리의 민속 신앙에 대해 그리고 이 성황당과 관계를 맺어온 녹색 어른신을 만날 수 있었다. 3. 녹색 어른신이 지역 주민과 관계를 잘 맺어 녹색 어른신이 더욱 빛나는 경우 가 있다. 구기동에 사는 소나무 녹색 어른신과 느티나무 녹색 어른신이 그 예 인데 녹색 어른신이 사시는 곳에 집과 아파트가 있어 더욱 더 집과 아파트가 빛이 나게 된 것으로 우리가 녹색 어른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때 우리 자신 도 빛이 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활동이었다.		

일정표

시간 (이동방법)	일정	세부 내용	비고
09:30 - 10:20 (도보 및 버스)	29, 30차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및 도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52 소재 느티나무(지정번호: 서 1-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40-1 소재 느티나무(지정번호: 서 1-6)	- 지도교사 인솔 (교통사고 주의)
10:20 - 11:30	녹색어르신과 대화나누기	- 대화를 위한 녹색 어르신의 신상메모 - 녹색 어르신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 우리 삶 속에 녹색 어르신이 계속해서 남아 있게 하기 위한 방법 정하기 - 명상을 통한 녹색 어르신과 영성 나누기 - 녹색어르신에 대한 주변 알리기 방법 구안	- 지도교사 교육지도 - 워크북 참조
11:30 - 11:40	간식 및 주변 청소	- 간식 - 주변 청소	- 지도교사 지도
11:40 - 11:50 (도보 및 버스)	31, 32차 녹색 어르신 스스로 찾아가보기 (지도 참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81-38 소재 소나무(지정번호: 서 1-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39 소재 느티나무(지정번호: 서 1-19)	- 지도교사 인솔 (교통사고 주의)

종로구 지역에 관한 지도



제 3, 4차 녹색어르신 찾아가기 지역

2004년 10월 03일 활동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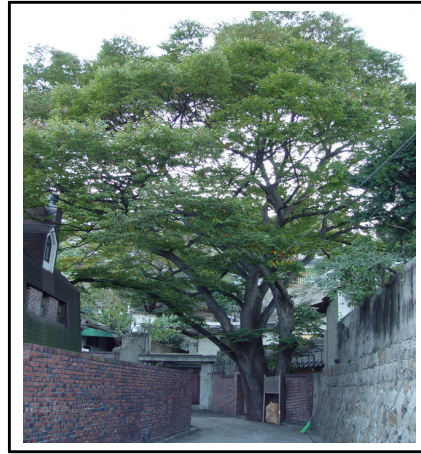
1. 녹색 어른신 찾아가기에 대한 느낌

오늘 녹색어르신 찾아가기에 대한 일정 느낌 적어보기 (찾아가면서 느꼈던 느낌)

처음에 비극의 나무를 찾으며 가면서 약간의 귀찮음을 느꼈었다. 실제로 거기 살았다 복원기는 같이 있는 곳을 지나야 했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전소가 근대권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월한 조사가 가능했다. 죽재가 급해서 사진반 찍고 나가거나 조사시간이 짧아. 비바람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었다. 한편에 다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찾아서온 들린 생명이 안 에 귀찮게 있는 나무들은 어떤가 무척 많이 의아보았다. 전체를 따올러 보니까 예전에 어떤 나무 잘라냈던 나무같은 나무를 보았다. 전체적이지는 않고 아래 가지부분이 비슷해보였다. 줄기 재질도 판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곳보다 아쉬운대로 발견 나온대로 조사를 하러 다녔다. 여기서 몇개는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대략적으로 조사를 끝내고 나가서 아쉬운 점들에 너무 많았다. 우선 보수를 위해서 출근을 재촉하고 있는 곳이 없는 점이다. 당연한 것일수도 모르지만 조금씩은 외부에서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나무 가까이 있는 나무들도 하나씩에 많다는 점이다. 환경같은 조치는 있으나 배워진 것 같다. 있으면 연극이나 저널리스트가 배 다음에 돈을 쓰는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번 조사를 끝내고 나서 사회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2. 녹색 어른신의 신상 메모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의 개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동로 44-52번지		주소	북나무		
녹색 어르신의 대화내용						
상세정보	구 분	남양주	지정번호	서1-22	유 별	풍치목
	지정연월	1981/10/24	지 목	대지	생육상태	중
수목의 특성	수 명	25년	수 고	13m	흉고 직경	35cm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매장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의 나무를 본 적이 있다. 남이 편에 전혀 사는데 해 보여서만 그래도 울퉁퉁하게 잘 자란다. 가지가 정말 짧아져서 그런 것 같다.				
보호시설	입간판	90x40	배치상태	콘크리트	보호책	무
피해부위	외의상태	중	수단상태	중	안 정 성	중
녹색 어르신의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조너서블 관리. 이 지역은 원래의 지역 주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있어. 수목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든. 어떤 것도 수목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도
	무	모두 콘크리트로 피복	0	3.0	유	3.0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어르신 찾아가기						
녹색어르신의 개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동로 44-1		주소	넙나무		
녹색 어르신의 대화내용						
상세정보	구 분	남양주	지정번호	서1-6	유 별	풍치목
	지정연월	1982/4/8	지 목	대지	생육상태	중
수목의 특성	수 명	51년	수 고	18m	흉고 직경	59cm
	수목의 느낌 적어보기	이 나무를 보니 나무 사슴과 유년 딱지를 관찰하는 노년과 주변에 벌레가 많이 있고 더러워 보여서 나무에 기생하고 기가 끈적거려서 나무가 휘어져서 되어 보였다.				
보호시설	입간판	없음	배치상태	콘크리트	보호책	유
피해부위	외의상태	중	수단상태	중	안 정 성	중
녹색 어르신의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꼭이 씨, 김희 씨, 이기 씨 등이 내는 지역을 찾은 것으로 보아, 수목이 살아있고 있다. 어떤 것이라도 발견하여 같이 관찰하고 나서의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찾아서 같이 방문하면 된다.					
녹색 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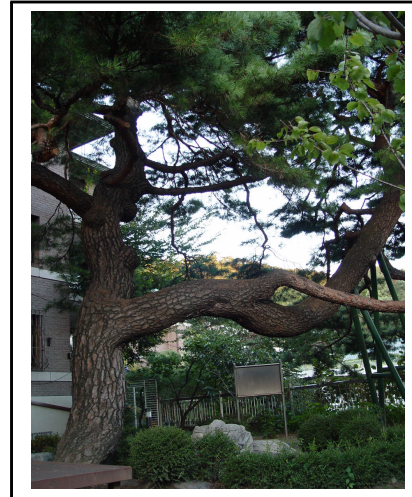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도
	무	회갈색	50	3.0	유	3.0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이르신 찾아가기						
녹색이르 신이 개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귀동 3번지			한자	넝마우	
녹색 이르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보통수	지정번호	세 1-1	유 명	종자목
	지정연월	1971/10/27	지 부	대지	생육상태	중
	수 명	35년	수 고	11m	흉고 직경	34cm
	수관폭	15m				
수목의 특성	줄기 어린 접목 심고 1년 내를 다듬어 볼 것 같다. 원상한 지점에서 세화하여 가지가 나뉘어 가지, 가다 사슴해 보인다. 딱 보니까 앞면의 모습이 꼭 부채같다.					
보호시설	입관판	90x60	바다상태	높	보호제	유
피해부위	잎의상태	중	수관상태	중	안정성	중
	생육상태	중				
녹색 이르신의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이런 나무는 많이 있어도 이 나무는 특별히 이 나무는 특별히 이 나무는 특별히 있고 이 나무는 특별히 이 나무는 특별히 이 나무는 특별히					
녹색 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도
	무	회갈색	100	3.0	무	3.0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녹색 이르신 찾아가기						
녹색이르 신이 개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귀동 3-32번지			한자	심나무(심수)	
녹색 이르신과 대화하기						
상세정보	구 분	보통수	지정번호	세 1-1	유 명	종자목
	지정연월	1971/10/27	지 부	대지	생육상태	중
	수 명	35년	수 고	12m	흉고 직경	11cm
	수관폭	15m				
수목의 특성	내편이 열매를 맺고 있다. 심나무는 심나무인데 두껍게 가지가 된다. 그리고 내편의 모습은 마치 송이버섯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생물학을 보는 것 같다.					
보호시설	입관판	90x60	바다상태	높	보호제	무
피해부위	잎의상태	중	수관상태	중	안정성	중
	생육상태	중				
녹색 이르신의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심나무에 있어 꽃피는 반이 있는데 이 나무는 예쁘게 하여 꽃이 피면 어떨까?					
녹색 이르신의 모습 담아보기						



pH	토양 생물 유무	흙의 색깔	토양 확보(%)	접근성	유래나 설화	관심도
	무	갈색	100	0.5	무	3.0

3. 녹색 이르신과의 교감과 봉양 대책

평생을 통한 녹색이르신 명성나무기 트립 적어보기	
<p>사람처럼 고고 장려, 도내에 대해 비교적 한곳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보물 같은 다름 하루를 충실하게 보냈고,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여행이 될 수 있었다. 이름과 한 가지의 이름이 나와서 정말 좋았다. 서울 거기에 사는 생활의 소중함을 알았다. 하지만 밤이 되어가고 해 뜨면 모든 것이 수려해진다. 그래서 고산은 맑은 다. 그리고 생활을 해 보았다. 이 나무는 수세기 동안 이 곳에만 있었던 것 같다. 나 같은 젊은이를 드문 드문 보았다. 빛과 바람이 휘날릴 것 뿐이지만 나무같은 고개가 정신 편이었던 나무가 있어있음을 느꼈다.</p>	
<p>녹색이르신의 지한 상황 주변에 알리기 방법 안배하기</p> <p>1. 나무가 이 활동을 해 주면 이걸 알리는 것이 아니다. 도내에 같이 사는 것만 마땅치 않고 우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활동이 끝나면, 생애 전체에 대해 있는 두 가지의 이름은 한 번도 접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지한에 대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우리도 나무를 사서 키우면 되고, 사면 한 번만 키우면 된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일까? 지한에 대해 알릴 을 통해 알릴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 볼까? 우리도 한번 해 볼까? 우리도 한번 해 볼까? 도내에 알리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도 한번 해 볼까? 우리도 한번 해 볼까?</p>	

활동 22			
세부 활동명	녹색 어르신 홍보하기(교내 왕희제 준비 및 축제 기간)		
교육일시	2004.10.09-10.23	교육장소	학교 내
		교육인원	27명
강사	성명	박 후 서	연락처
	약력	1. 대신고등학교 환경지킴이 동아리 지도교사. 2. MBTI 강사 3. 한국 환경교육학회 정회원 4. 한국 자생식물보존회 정회원 5. 그린웨이리·그린스카우트 지도교사 협의회 중·고등부 회장 6.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회원	
교육내용	1.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녹색 어르신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2. 우리의 현장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녹색 어르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그림을 전시하는 전시실을 만들어 녹색 어르신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① 사진 속의 녹색 어르신 신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정리 및 실제상황과 같은 연습을 한다. ② 녹색 어르신 특유의 모습이나 느낌을 관람자에게 전달하면서 실제 생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상황임을 관람객들에게 호소한다. ③ 전시를 통해 종로구 내의 여러 녹색 어르신의 존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현지 탐방을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녹색 어르신의 팬클럽을 만들어 녹색 어르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존을 갖도록 한다. ④ 녹색 어르신의 분신인 목재를 이용하여 나무 목걸이를 만들어 몸에 부착해 보는 계기를 통해 녹색 어르신과 나와 하나됨을 느끼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3. 녹색 어르신의 전시장에 환경 카페를 만들어 녹색 어르신 전시장을 찾아온 관람자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① 친자연적인 차나 음식을 준비하여 녹색(초록)의 삶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4. 녹색(초록)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시되는 것이 에너지와의 관계이다. 재생가능하며, 친환경 에너지가 아직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음악회를 개최한다. 5. 관련 자료 첨부 ① 활동사진 ② 관련 환경현장교육 자료		
준비물	이절지, 수채화나 파스텔, 크레용 화를 그릴 그림도구, 노거수 사진, 판넬, 전시장 설치물, 이젤, 색지, 커튼, 액자, 피아노, 카메라, 필름, 녹음기, 쓰레기봉투, 설치에 필요한 공구, 못, 나사, 접착 테이프, 색 지, 음료, 과자, 목공예품 재료, 전 시등, 안내 광고문 등	참고 자료	1. 인터넷: 노거수 관련 자료 http://152.99.197.75/koreaplants/index.htm http://www.congnamul.com/ 2.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
평가	1. 단원 전체 한마음으로 정성껏 녹색 어르신이 현재 처해진 어려운 실정을 교내 학생뿐만 아니라 전시회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홍보하였다. 2. 단원 전체가 한마음으로 환경음악회, 환경카페, 목공예품 만들기를 통해 축제 참여 학생들에게 녹색 어르신의 보살핌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2004년 10월 09일 -10월 23일 활동사진

녹색 어른신의 모습 그려보기



녹색 어른신의 홍보 전시장 준비



녹색 어른신 홍보전락 세우기



녹색 어른신의 홍보 전시장 완료



녹색 어른신 홍보 초대장, 전시장 소개, 홍보 안내 도우미들



녹색 어른신 홍보 전시 장면들(사진전, 목공예품 제작, 카페, 환경음악회)



2004년 10월 9- 10월 23일 활동 결과물

제목: 왕희제 그린스카우트 홍보전을 보고..

2학년 12반 3번 최희욱

왕희제의 그린스카우트(이하 그린으로 합니다)홍보전은 매우 재미있었다. 환경전시회로 이름 지어진 이 홍보전은 역시 가이드의 설명 없이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 그린 가이드는 매우 좋았고, 그 이유는 역시 지도교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제부터 환경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나의 생각을 써보도록 하겠다.

환경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매우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점 환경에 대한 단체들이나 여러 국가간의 규약과 규제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 것은 이제 급속한 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보호 의식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지각 있는 운동가들 빼고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드문 것이다. 뭘 물의 날이다 식목일이다 해서 환경을 위한 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극히 조금일 뿐 심각하게 망가져버린 우리의 환경을 구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의 우리 환경은 어떠한가?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물은 줄어들고 있으며, 도심 나무는 산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장식품이 되었고, 도시의 대기는 엄청난 황과 납, 그리고 먼지로 뒤덮여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결국 인간들을 향한 자연의 복수인 것이다. 그로인해 인간은 점점 멸종으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우리는 환경보존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환경은 그린의 환경전시회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환경을 얼마나 지나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전에서 보았던 나무들.. 그 나무들은 몇 백년을 산 것도 있을 수 있고 심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무도 있을 수 있다.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사진전이 의도하는 바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 오래된 나무들만 막 전시행정을 들어가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서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도 좀더 세심히 보호해줄 수 있는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환경보호가들이 많이 있어, 많은 입들이 환경보호를 말하여도 그린 여러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생각들이 없다면 환경보호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를 위해 가져야 할 첫 번째는 다양한 많은 생각들을 겸허하게 수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른 지식이다. 아무리 트인 생각들이 있어도 바로 박힌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환경보호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바른 지식은 환경보호에 관한 지식들을 말한다. 의외로 내가 보기에 환경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상한 방향으로의 보호운동이 되는 것을 TV나 신문 등에서 보곤 했다. 예를 들면 신문에서 나오는 잘못된 환경운동에 관한 기사들이 있다. 뭐 고발내지는 비판형식의 것들이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 매우 그 운동에 투자된 돈과 인력이 아깝다. 지금은 생각나는 예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학교이다. 학교의 서클내지는 CA 활동 등에서 그런 지식을 매우 손쉽게 습득할 수 있다. 학교는 일반 지식 외에 이런 썩은 지식들도 가르쳐주는 좋은 기관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환경운동을 배우는 것은 약간 장애가 있는데 그 것을 보완해 주는게 환경단체이다. 환경단체는 여러 운동가들이 만든 것이 있는데 자신의 성향을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결정하기 힘들다면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학교선생님과 상의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를 통해 환경운동 체험도 하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언급 하였던 것들에서 바른 환경지식과 행동거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역시 행동이다. 남과 다른 생각과 바른 지식이 있다면 나머지는 행동으로 채우는 것이다. 작은 행동이라도 좋다. 쓰레기를 줍는 다든지 물을 아껴 쓴다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바른 지식 습

득 편에서 말했던 환경단체 활동, 환경단체 주관 봉사등도 좋은 행동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환경정화 활동이 타율에 의하여진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우리나라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의식변화에서 나온다. 앞에서 말했던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환경보존은 선생님의 강요나 남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연을 우롱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된다.

지금까지 환경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환경보존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누군가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했다. 이 정도로 환경보존은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자연이 없다면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이 지구밖에 없지 않은가. 이 지구를 지키는 것이 환경보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린스카우트의 사진전에서 나는 어떤 고목을 보았다. 그 고목은 몇 백년간 이 땅에 서있었다고 하였다. 그 나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가 천년을 채우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다. 모든 자연환경구성물들이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대로 살게 되는 순간,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진정한 자연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들을 제 몫에 맞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인간의 끝나지 않는 미션이다. 왜냐면 우리는 그들을 너무 많이 파괴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희생은 자연 구성물들의 공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자연은 아직도 기다려주고 있다. 자신들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손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차례다.

활동 23	
세부 활동명	지속적인 녹색 어르신 보전을 위한 현장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정리하기
교육일시	2004.12.02-12.04 교육장소 학교 내 교육인원 27명
강사	성명 박 후 서 연락처
	약력 1. 대신고등학교 환경지킴이 동아리 지도교사. 2. MBTI 강사 3. 한국 환경교육학회 정회원 4. 한국 자생식물보존회 정회원 5. 그린웨이·그린스카우트 지도교사 협의회 중·고등부 회장 6.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회원
교육내용	1. 한 해 현장 환경교육 참여에 대한 소감 토론회하기 2. 자신의 생태적 감성, 영성, 행동에 대한 환경 의식의 변화 정도 측정해보기 ① 준비된 설문지에 솔직하게 응답을 한다. ② 지속적인 녹색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3. 올 해 만났던 녹색 어르신들이 우리의 곁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추후 생태적 실천 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한다. 4. 관련 자료 첨부 ① 활동사진 ② 설문 결과는 현장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단원들의 환경 의식 변화 정도에 대한 효과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준비물	설문지, 필기도구, 프로그램 활동 기록지, 카메라 참고 자료
평가	1. 단원들의 환경보전 의지에 대한 생각들이 조그마한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난 한 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힘들었지만 너무도 보람된 시간을 보내 행복하다. 2.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나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던 나무가 이제 우리의 삶과 함께 해온 우리와 동일한 한 생명체이며, 우리보다 한참 나이가 더 든 어르신으로 가슴 벅차게 진실로, 진실로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온 한 해가 되었다. 3. 녹색 어르신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소외된 아이들이 우리 눈에 새삼 아른거리며, 겨울에 이 곳을 방문하여 삶을 부대키며 하루를 보내자고 단원들과 약속을 했다.

2004년 12월 02일-12월 04일 활동사진

단원들의 한해 환경교육 참여에 대한 토론 모습



단원들의 한해 환경교육 참여에 대한 토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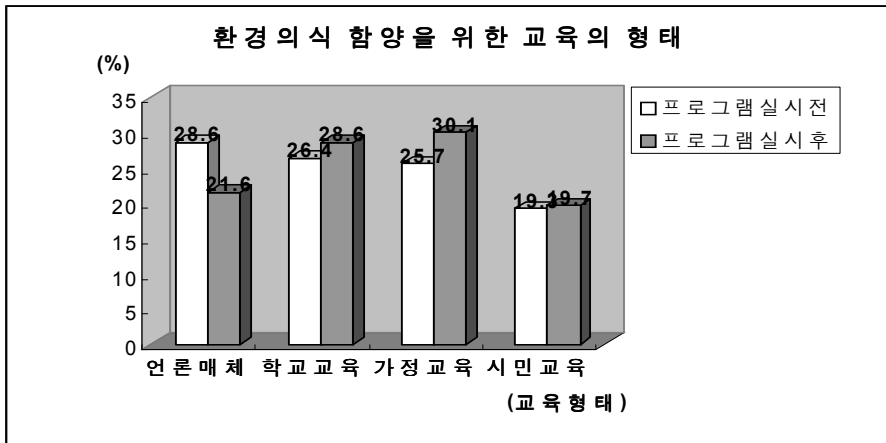
현장환경 교육 참여에 따른 자신의 환경의식 변화정도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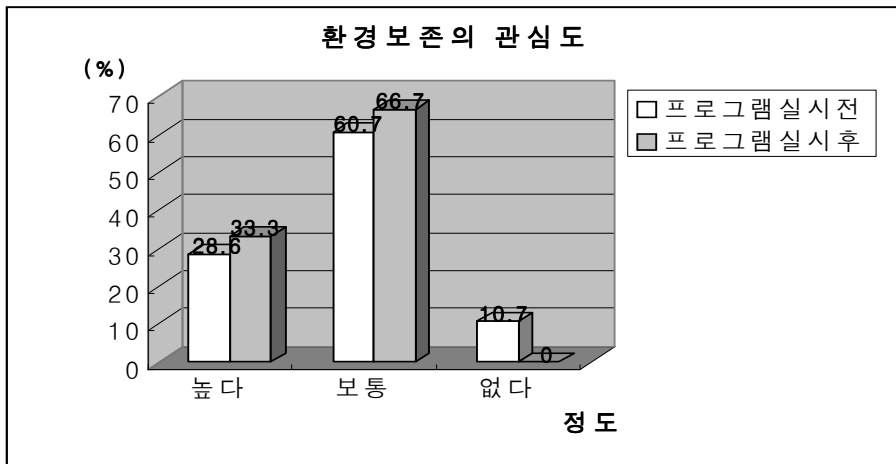
현장환경 교육 참여에 따른 자신의 환경의식 변화정도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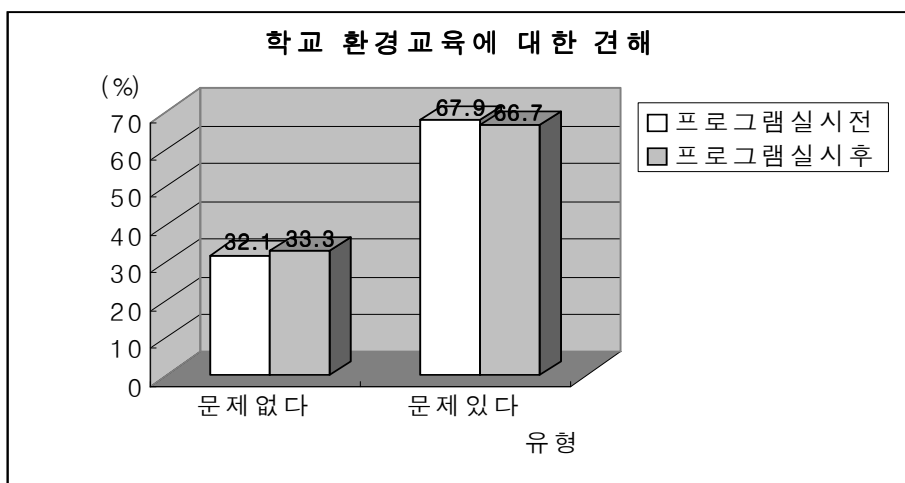
3. 평가: 본 프로그램을 진행 한 후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에 대한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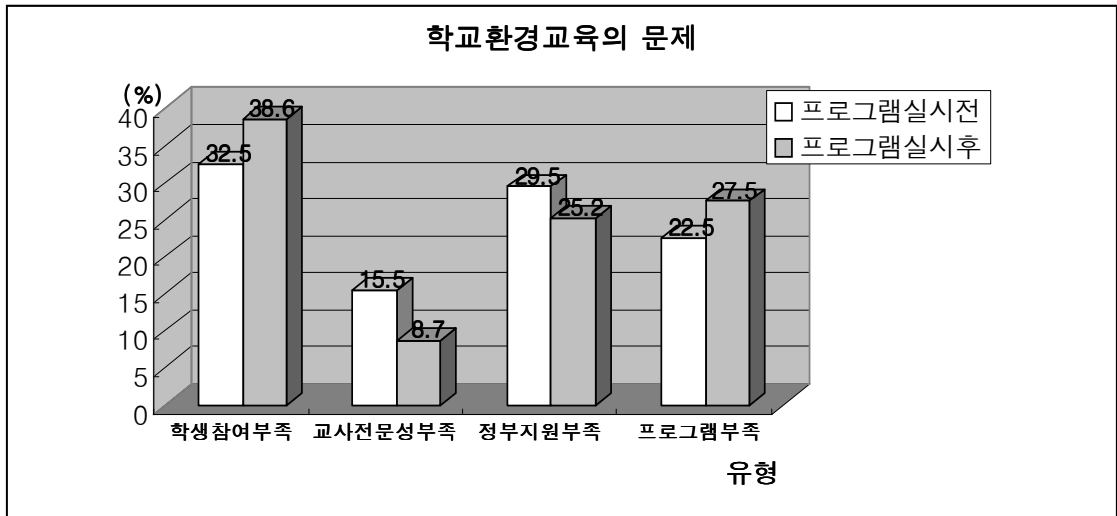
학생들은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형태로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언론매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학교와 가정교육이 환경의식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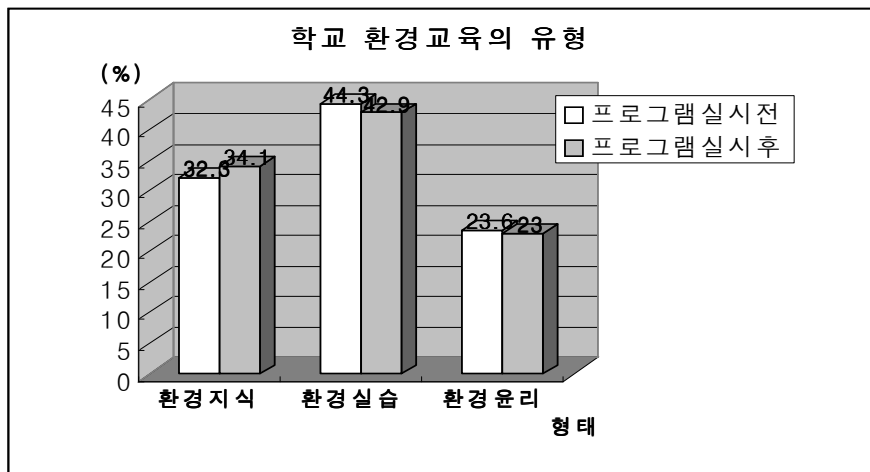
학생들의 환경보존의 관심도는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실시 후가 10.7% 정도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학생들의 환경보존 관심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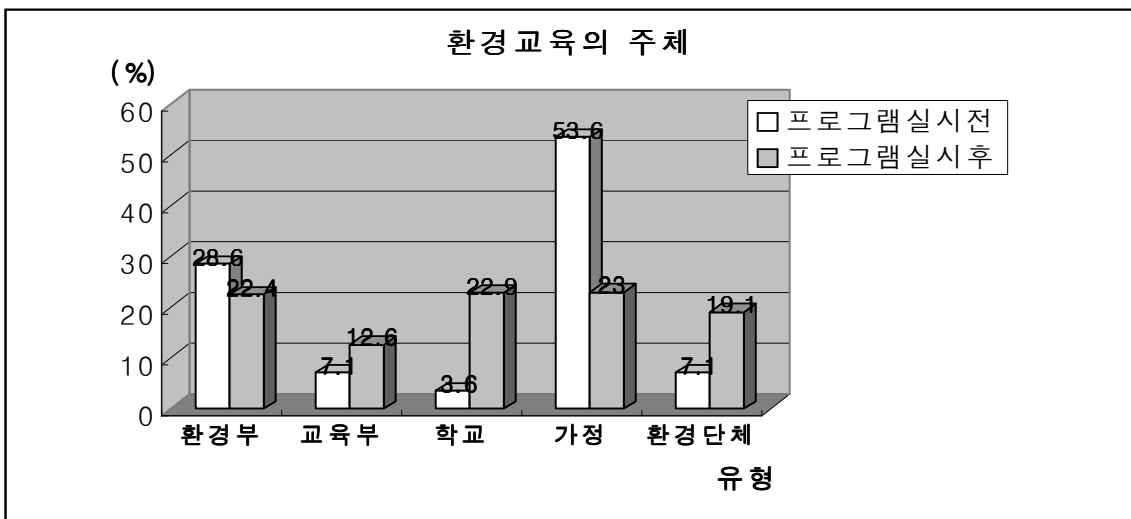
학생들의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생각에 대해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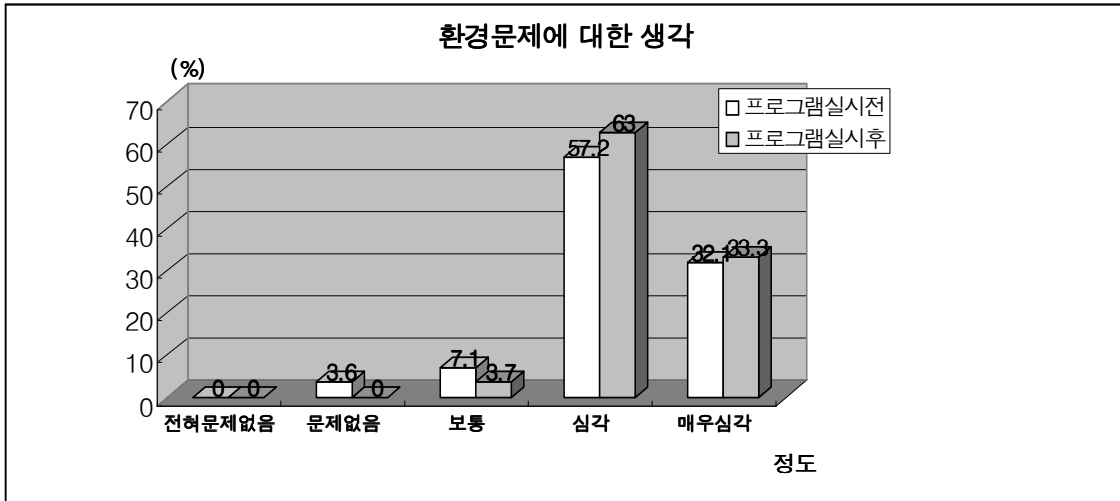
학생들의 학교환경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프로그램 실시 전에 대해 실시 후의 생각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교사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것과 학생들의 환경교육 참여의지에 대한 부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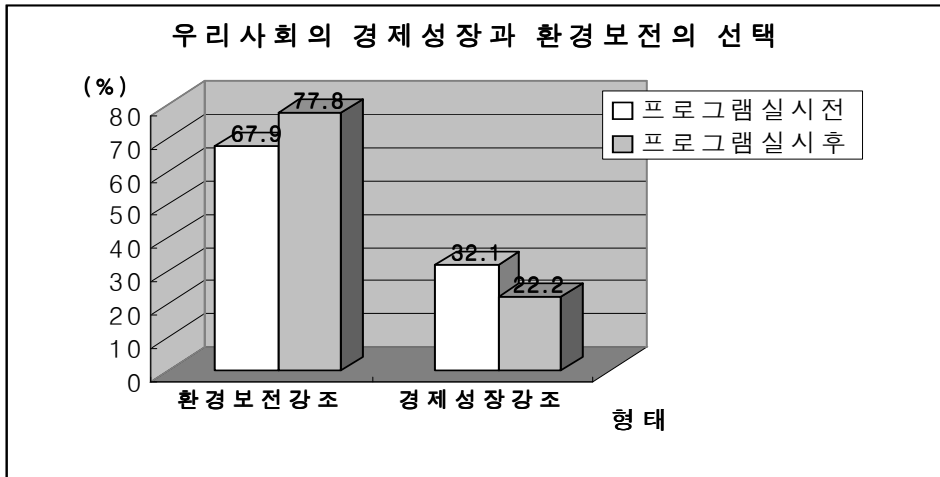
학생들이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실시할 때의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선호도는 같게 나타났으며, 환경실습, 환경지식, 환경윤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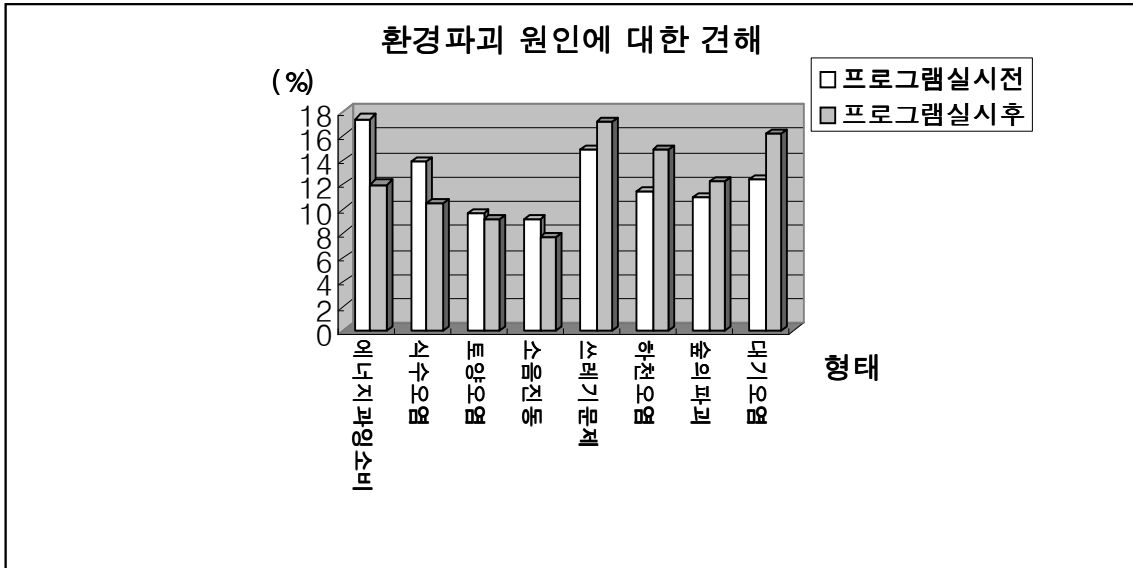
학생들의 환경교육 주체에 대한 생각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가정, 환경부 환경단체, 교육부, 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가정, 학교, 환경부, 환경단체, 교육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로 환경교육 주체에 대한 변화로 가정이 가장 크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환경교육의 주체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교의 경우, 환경교육 주체로서 가장 큰 상승의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환경교육 주체에 대한 경향이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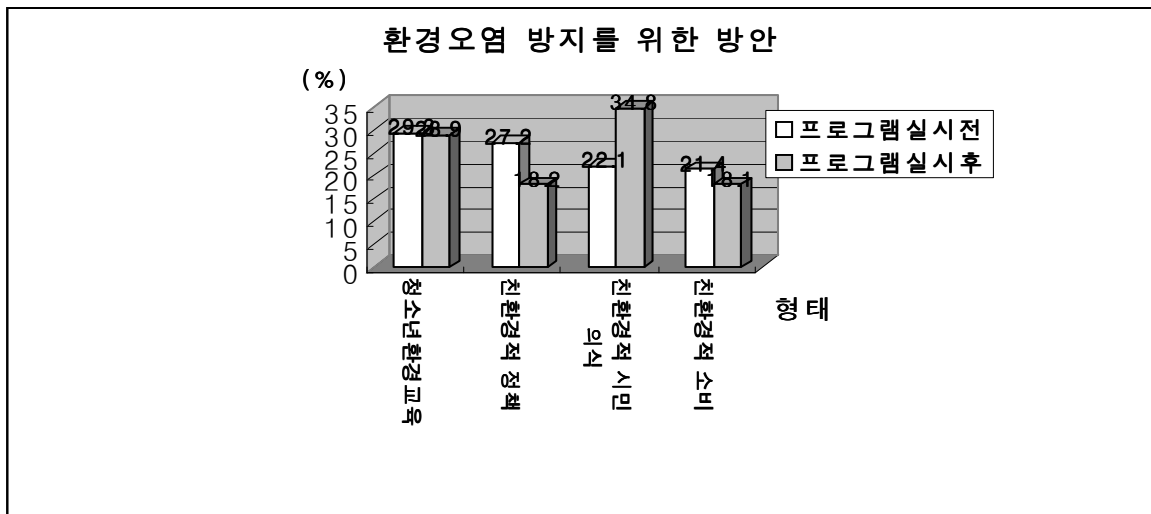
학생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이나 실시 후 7%가 증가하여 환경현장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학생들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높이는 영향을 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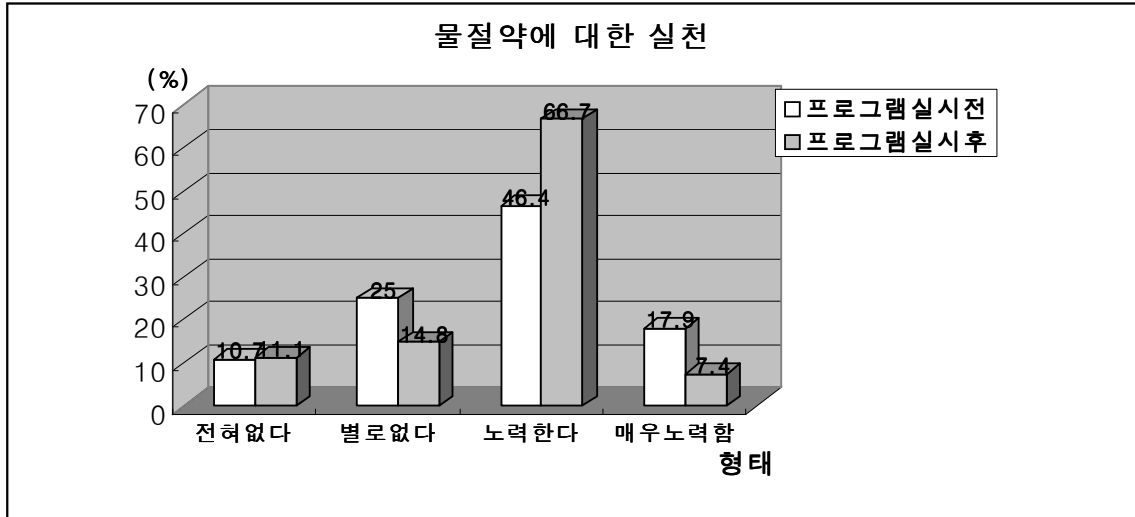
학생들의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선택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대한 변화에서 환경보전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실시로 학생들이 환경보전을 강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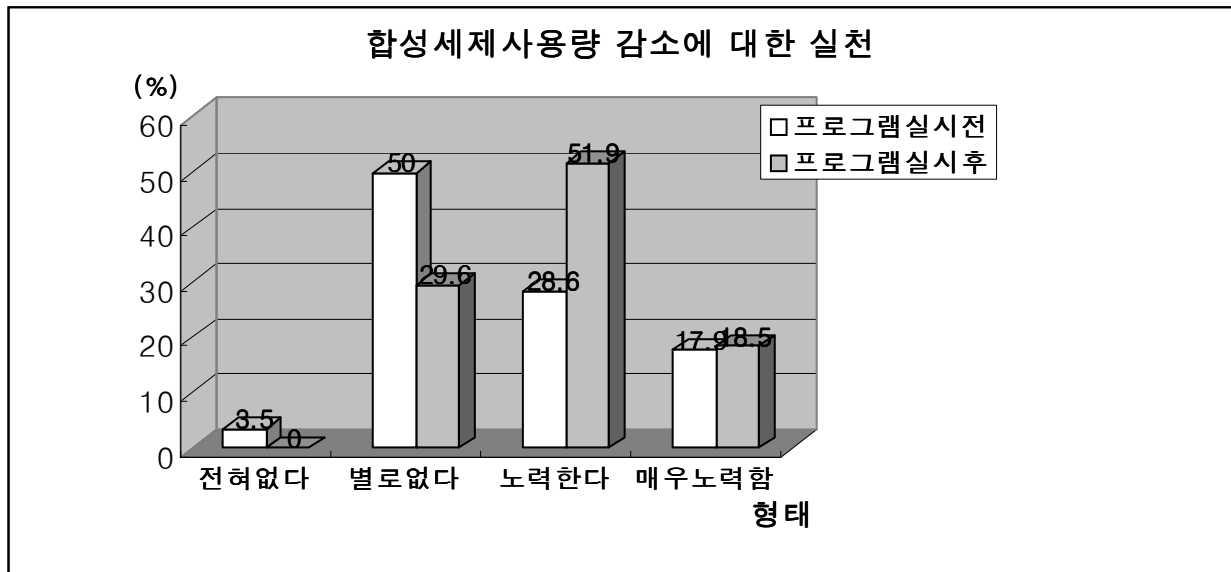
학생들의 환경파괴 원인에 대한 견해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에너지 과잉 소비, 쓰레기 문제, 식수 문제, 대기오염, 하천오염, 숲의 파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쓰레기 문제, 대기오염, 하천오염, 숲의 파괴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숲의 파괴에 대한 생각이 프로그램 실시 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숲과 관련된 노거수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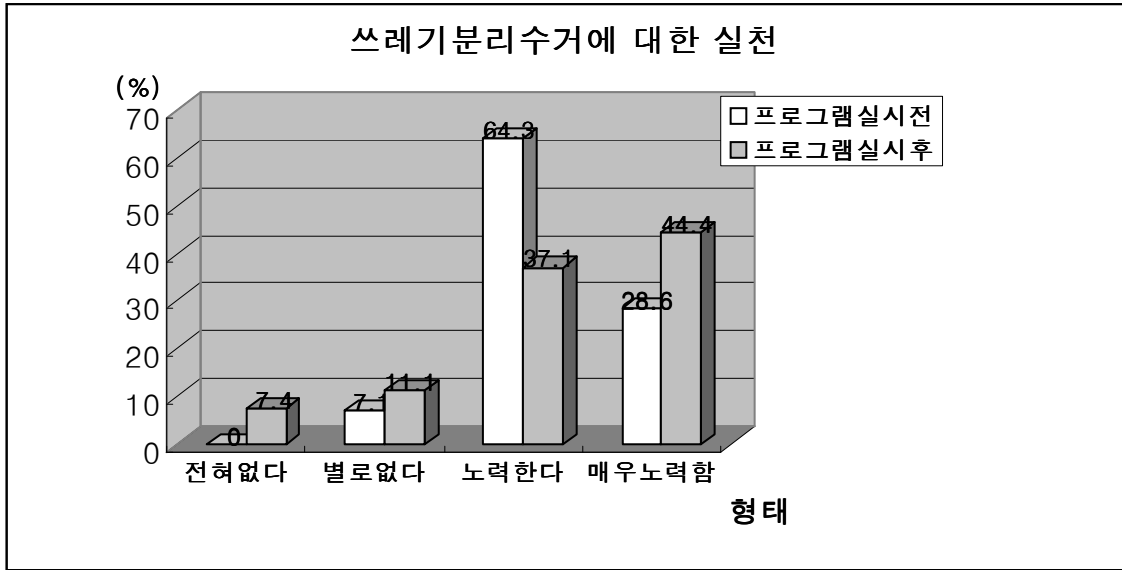
학생들의 환경오염 방지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은 청소년의 환경교육으로 보았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친환경적인 시민의식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생각의 변화를 보였다. 친환경적 시민의식과 청소년 환경교육이 서로 연계하는 것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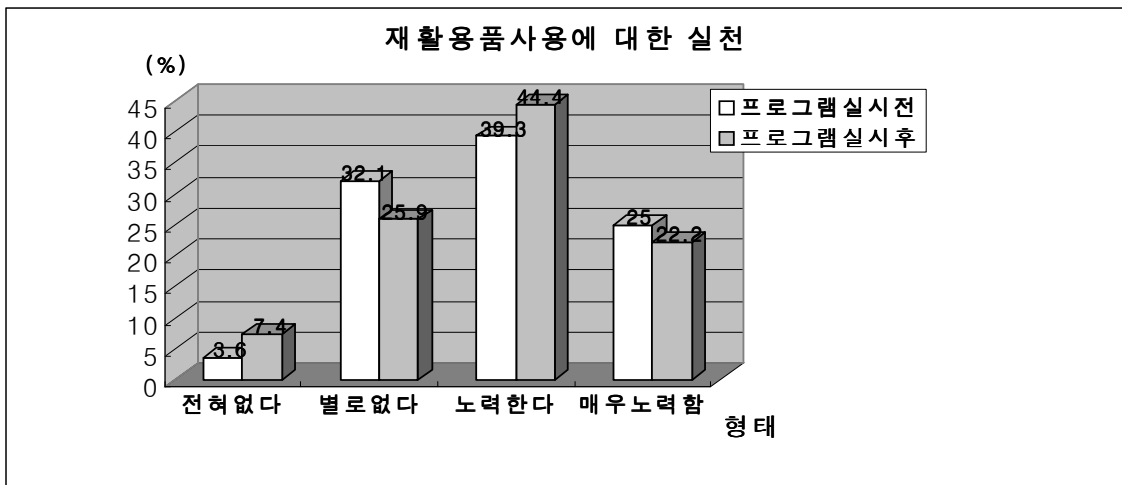
학생들의 환경보전 실천에 대한 경향 조사에서 물질약에 대한 경우,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물에 대한 환경교육이 프로그램 실시와는 다른 기관에서 실시를 하게 된 것이 변화 요인이 아닌가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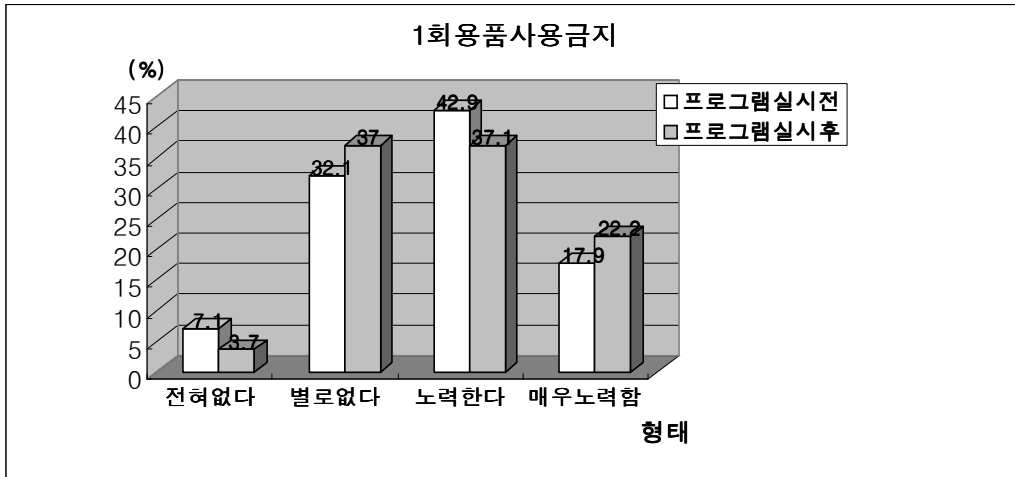
학생들의 합성세제 사용량 감소에 대한 실천의지 변화 조사는 특별히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수질 오염에 관련된 환경 교육 실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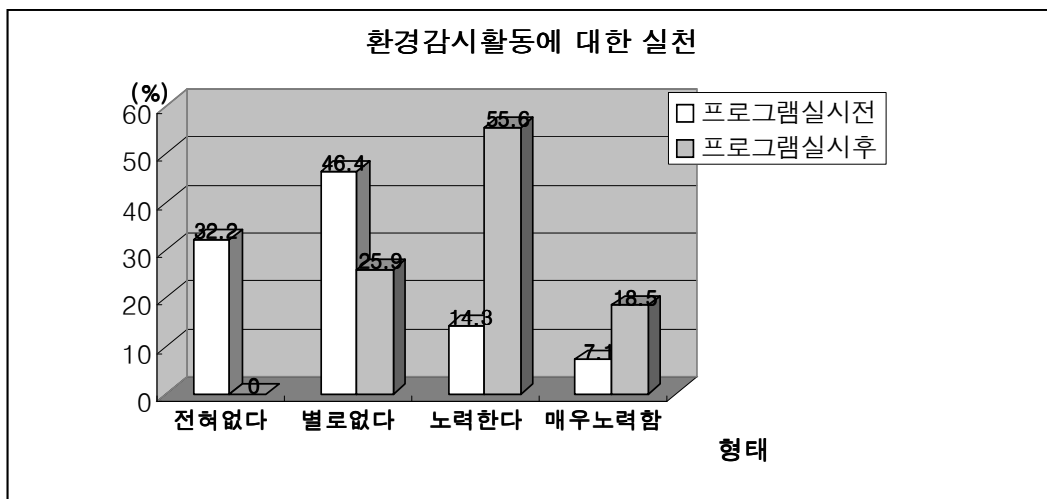
학생들의 환경보전 실천에 대한 경향 조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실천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환경보전 의식에 대한 허수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곧 환경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실천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앞으로 좀 더 많은 현장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계속해서 높여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로 남게 한다.



학생들의 재활용품 사용에 대한 실천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실시 후가 2.3%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노거수 보전을 위해 과소비 보다는 적절한 소비 절약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의 1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조사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가 오히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 생활에서 1회용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학생들이 환경보전 의식에 대한 허수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곧 환경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실천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앞으로 좀 더 많은 현장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계속해서 높여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로 남게 한다.



학생들의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실천의 조사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환경실천과 함께 우리 생활에서 환경보전에 반하는 사례들을 수집하여 토의하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나아가 외부에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생각이 증가되는 경향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이 주로 노거수의 실태를 살펴본 것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환경의 파괴 정도에 대한 현실감 있게 경험한 것이 그 영향이 아닌 가 사료된다.

6. 교육 관련 자료

1. 김갑덕 외, 1994. 「숲· 사람과 문화」. 서울, 탐구당.
2. 김성우, 남현철(1997).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지식태도 조사연구, 환경교육, 10(2), 285-310.
3. 김은식. 2003. 국민대학교 산림학교: 산림과 환경문제. 두솔.
4. 김장수, 1994. 「숲· 사람과 문화」, 서울, 탐구당, pp 9-19.
5. 김포 매립장, 2003. 「김포 쓰레기 매립장의 실태에 대한 비디오」
5. 녹색연합 생태발자국 측정하기 (<http://www.greenkorea.org>.)
6. 도널드 워스터. 1994,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서울, 나라사랑.
7. 산림청 보호수 관련 사항. <http://152.99.197.75/koreaplants/index.htm>
8. 신원섭, 1999, 「숲과 종교」, 서울, 수문출판사.
9. 이성필, 2003. 「숲과 물 그리고 문화」. 서울. 수문출판사.
10. 이진우, 1997. 「녹색 사유와 에코토피아」. 서울. 문예출판사.
11.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 서울. 향문사.
10. 장희익 외, 1998,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영성」. 서울, 내일을여는책.
11. 정영근, 배현희, 김영란, 2003. 환경지속성지수 논의동향 및 개선방향, 환경부.
12. 전영우, 2002. 「숲과 한국문화」, 서울, 수문출판사.
13. 종로구 보호수 관련 사항 <http://www.congnamul.com/>
14. 최병두 외, 1996, 「녹색전망」. 서울, 도요새.
15. 최현정외 1인(2000). 환경보전 행위와 자연관련 경험과의 관계 연구, 환경교육, 13(1),53-64.
16. 하나뿐인 지구, 2003,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EBS, 2003.04.14. 방영.
17. 하나뿐인 지구, 2003, 「항생제 오남용,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가?」, EBS, 2003.08.25. 방영.
18. 하나뿐인 지구, 2004, 「미래를 위한조건-세계정의」, EBS, 2004.02.16. 방영.
19. BBC 다큐멘터리, 2003. 「우주 제 6부 당찬 도전」.
20. KBS 미디어. 1996. 「식물의 사생활(소리없는 여행)」, 10.23일 방영.
21. KBS 미디어, 1998. 「 다큐멘터리 우주, 그 끝은 어디인가!」